

리아호나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30쪽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배움, 26쪽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12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칠레

푼타아레나스





칠레 북쪽의 사막 도시부터 중앙에 있는 대도시 산티아고, 그리고 남쪽의 와드 7개와 지부 2개가 있는 푼타아레나스 스테이크까지 교회는 칠레에서 굳건히 자리 잡았다. 다음은 칠레와 그곳에 있는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다.

교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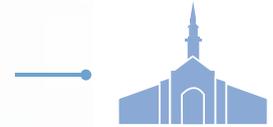
595,526

3.3



퍼센트,
교회 회원의 인구 비율

77개의 스테이크,
590개의 와드 및 지부,
10개의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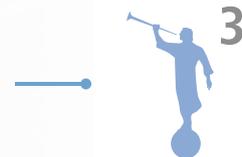


100



가족 역사
센터 수

성전의 수:
산티아고(1983년 헌납),
콘셉시온(2018년 발표),
안토파가스타(2019년 발표)



3

4,270

킬로미터—칠레
북쪽 국경에서 남쪽
국경까지의 거리.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350km임

1956 최초의 와드가 조직된 해

1972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된 해

1988 칠레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스테이크 수가
50개에 도달한 해

1994-96 새로운 스테이크
26개가 조직된 기간



사진: GETTY IMAGES

이번 호 『리아호나』에서

이번 호의 기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교회와 정부의 최근 지침에 따라 제언을 조정한다.

동성에게 끌리는 내가
교회 회원들에게 다시
환영받을 수 있을까?

밥 버스티지

40



교회 역사:

힘과 영감의 원천

쿠엔틴 엘 쿡 장로,

케이트 홀브룩,

매트 그로우

12



교회에 대해 내가
속았다고 느꼈을 때

트래비스 이웰



‘함께’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방법

이 번 달 물문경 학습에서 우리는 코리호어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는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속고 있다고 설득했으나, 나중에는 그 자신이 사탄에게 속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조람인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 전체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때 적극적으로 교회와 맞서 싸웠던 엘마 이세가 자신의 성인 자녀들을 강화하여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서 멀어질 선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 더이상 참석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정말 강한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돕고 싶긴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잡지 한 권으로는 신앙이 식는 온갖 이유를 다 다룰 수도 없고, 또 그럴 경우에 대응할 방법을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의 여정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번 호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 남성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경험과 그로부터 배운 것.(26쪽 참조)
-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의 중요성.(40쪽 참조)
- 다른 길을 선택한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방법에 관해 부모에게 주는 제언.(30쪽 참조)
- 교회 역사에 관한 유용한 견해와 그것을 통해 우리 신앙을 강화하는 방법.(12쪽 참조)

이 기사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을 위해 하늘의 인도를 구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심을 담아,
애덤 시 올슨
관리 편집인



목차

5 전 세계 예술가를 초대합니다 🎨

6 신앙의 초상 🖼️

이그내이션스와 애들레이드 바이두

바이두 부부는 복음 문해 프로그램이 가져온 축복을 스테이크 회원들과 가족에게서 직접 보았다.

8 성역의 원리

교회 활동을 통한 성역

우리는 교회 활동을 통해 우정을 쌓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성역을 행할 기회를 얻게 된다.

12 교회 역사: 힘과 영감의 원천

쿠엔틴 엘 쿡 장로, 케이트 홀브룩, 매트 그로우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더 충실히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과 열망을 심화할 수 있는가?

20 인도의 개척자들을 생각하며

타우날린 러더퍼드

충실한 이 회원들은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여실히 보여 준다.

26 교회에 대해 내가 속았다고 느꼈을 때

트래비스 이월

이월 형제는 자신이 알게 된 무언가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다. 결국 한동안 교회를 떠난 후에야 그는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30 너는 사랑하라, 구원은 그분께서 하시리라 🙏

크리스타 로저스 모텐스

한 어머니가 성인 자녀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32 후기 성도의 소리 🗣️

자신들의 어려움을 제쳐두고 성역을 행한 가족, 자신의 믿음을 수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용감한 이등병, 약속을 지킨 어머니,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 용서.

36 와서 나를 따르라: 물문경 📖 🙏

이 주간 기사를 활용하여 이번 달 물문경 학습을 더욱 훌륭히 해낸다.

40 동성에게 끌리는 내가 교회 회원들에게 다시 환영받을 수 있을까?

밥 버스티지

버스티지 형제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회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다.

🕒 짧은 기사

📖 와서 나를 따르라 지원



표지
Credit to come

섹션

청년 성인

44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호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몇 가지 비결을 배운 청년 성인들의 이야기를 읽어 본다.



청소년

52

어떻게 **복음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의 **단순한 선택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본다.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도 얼마처럼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7월 온라인 전용 기사



복음에 대해 어떤 의문을 느끼는가? 답을 찾는 다섯 가지 방법이 여기 있다.

차켈 워들레이

한 청년 성인이 어떻게 의문이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인도에 세워질 성전에 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에쉬안트 코시레디

인도의 한 청년 성인이 처음으로 성전에 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의로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마크 데오 델라 크루스

필리핀의 한 청년 성인이 장래 계획이 바뀌면서 어떻게 신앙을 찾게 되었는지 나눈다.

2020년 7월호 제57권, 제7호
리아호나 16722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다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던, 게릿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핑크
고문: 베기 크레이븐, 쉘런 유뱅크,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윌터 에프 곤잘레스, 래리 에스 캐처, 쟈 이 뉴먼, 아드리안 오초아, 마이클 터링우드, 빈 피 스탠필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자: 애덤 시 울슨
주무 편집자: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카밀라 카스트리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웨드워드, 매튜 디 플리튼,

게릿 에이치 가프, 존 라이언 젠슨, 에런 존슨,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퍼기, 쟈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롭나, 민디 셀루, 로리 플러 소사, 차켈 워들레이, 마리아 위디슨
편집 인턴: 알레이나 웅스가드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타스
디자인: 저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러스, 멘디 멘틀러, 시 캄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코트 엠 무어, 알레나 레기어, 마크 더블유 로빈슨, 케이 니콜 워크호스트
디자인 인턴: 켈시 파크웰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타스
제작팀: 아이라 클렌 아데어, 줄리 버넷, 호세 차베스,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터블류 지기, 지니 제이 낄슨, 마리아 엠 스피스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잘레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26호, 제57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20년 6월 1일(월간지)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 (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투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 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ecember 2019 Vol. 43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여러분은

- 최신호 리아호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앱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

질문과 피드백이 있다면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전 세계 예술가를 초대합니다

유 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역사박물관이 후원하는 제12회 국제 미술 작품 공모전에서 새로운 작품을 모집합니다.

매체, 스타일, 문화적 접근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교회 역사박물관에 전시되며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예술가들의 작품을 심사합니다. 이 대회는 후기 성도의 수준 높은 예술 창작을 장려하고, 후기 성도의 문화 제작의 폭과 다양성을 전시하며, 교회 역사박물관의 소장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 주제: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이것은 니파이후서 26장 33절에서 영감을 받았다.
- 제출 날짜: 2021년 2월 1일~6월 1일
- 참가 연령: 만 18세 이상
- 수상자 발표: 2021년 10월 중 전시회 선정 작품의 작가에게 통보
- 전시 날짜: 2022년 3월~2022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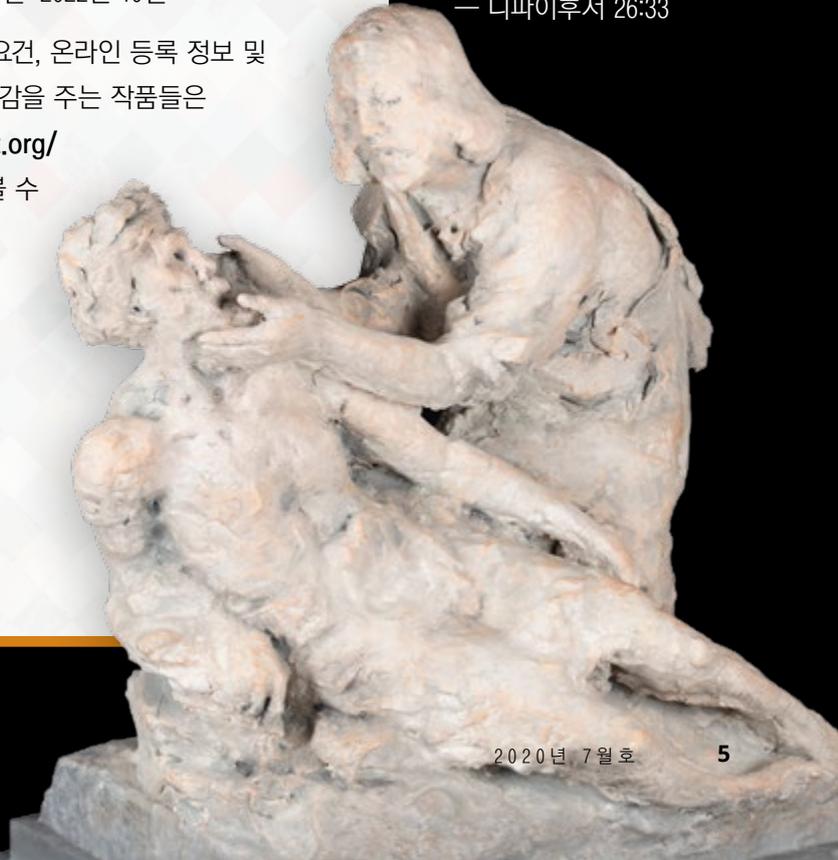
자세한 규칙, 자격 요건, 온라인 등록 정보 및 이전 대회에 출품된 영감을 주는 작품들은

ChurchofJesusChrist.org/artcompetition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주]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명백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맏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 니파이후서 26:33

모두 다 하나님 께는 동일하니라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가시편을 씌고리산”, “아담 리 서원도”, “제자리를 찾은 조지들”, “페이지 크루슬랜드 앤더슨”, “생수”, “로즈 데이비드 달”, “자유하시는 그리스도”, “리브이 글렌 트랜스필드”, “구원의 계곡”, “종려 유언 임”

이그내이셔스와 애들레이드 바이두

가나 아크라



이그내이셔스와 애들레이드는 교회 문해 프로그램과 가정에 중점을 둔 복음 학습을 강조하는 지침이 어떻게 스테이크 회원들과 가족들을 축복했는지를 보았다.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이그내이셔스:

저는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으로 복음 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참관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단지 문맹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와 가정이 중심이 되는 복음 학습은 또한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들레이드: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함께 몰몬경을 읽을 때 자녀들이 서로를 도와주어 무척 기쁩니다. 저희 아이들은 몰몬경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함께 몰몬경을 읽고 간증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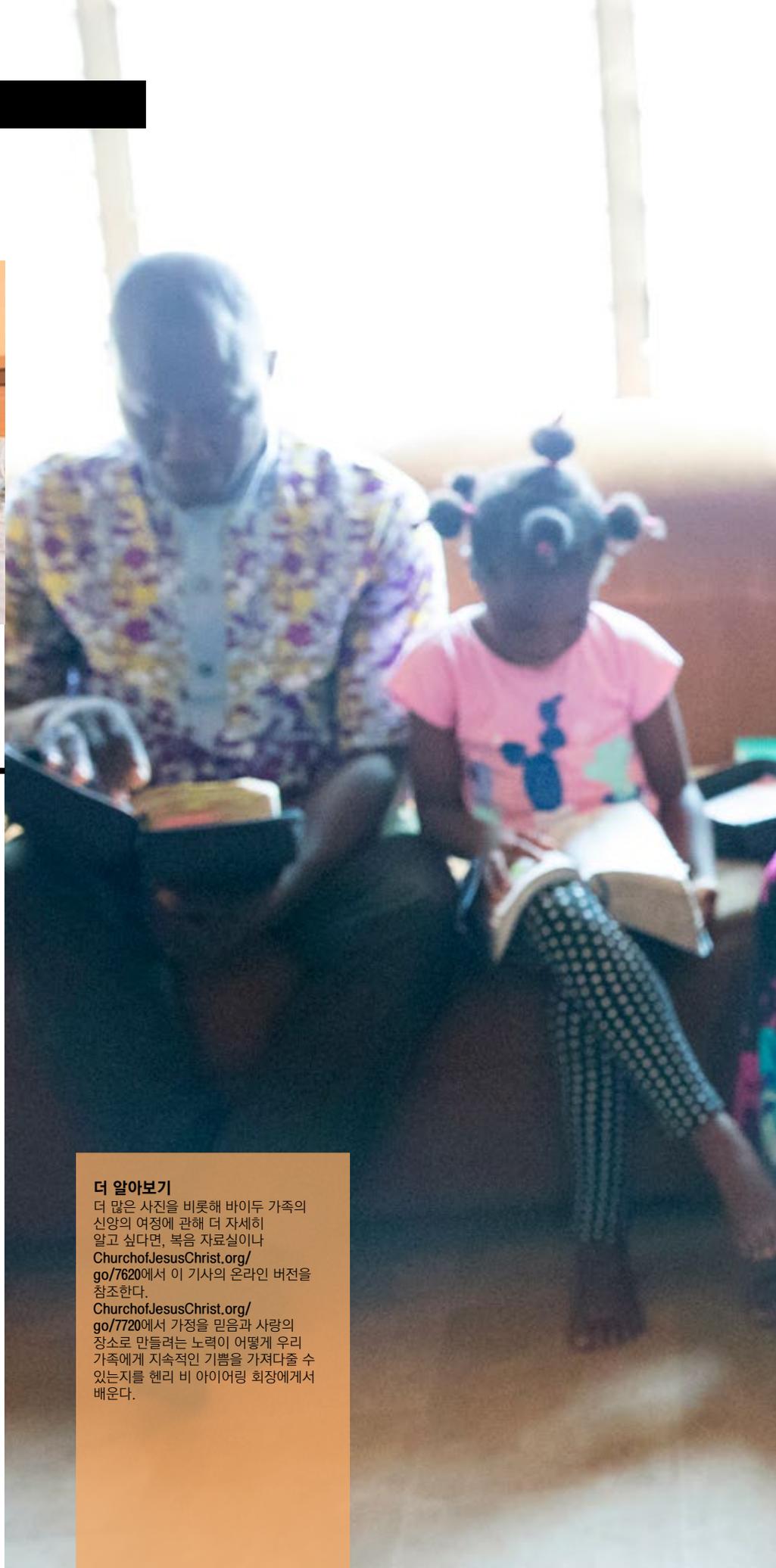
이그내이셔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승명이 가족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

전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주

1. 러셀 엠 넬슨, “와서 나를 따르라”,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89쪽.



더 알아보기

더 많은 사진을 비롯해 바이두 가족의 신앙의 여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복음 자료실이나 [ChurchofJesusChrist.org/go/7620](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go/7620)에서 이 기사의 온라인 버전을 참조한다. [ChurchofJesusChrist.org/go/7720](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go/7720)에서 가정을 믿음과 사랑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에게서 배운다.



성역의 원리

교회 활동을 통한 성역





교회의 활동은 우리가 와드 회원들과 이웃과 친구에게 성역을 베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의 필요 사항 또는 흥미를 고려해서 활동을 계획하든, 활동 모임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든 간에, 와드나 스테이크, 또는 연합 스테이크 차원의 활동은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그들을 강화하는 의미 있고 즐거운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교회 활동은 성역을 베풀 다양한 기회의 문을 열어 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교회 활동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주는 봉사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교회 활동은 교회의 저활동 회원들, 그리고 종교가 다르거나 아무 종교도 없는 친구들에게 다가갈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을 교회 활동에 포함시키면 주님께서 와드와 지부, 이웃, 지역 사회를 축복하고 강화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데이비드 덕슨 가족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방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웅장한 붉은 절벽과 산속, 상록수로 둘러싸인 미국 애리조나주 프레도니아라는 고지대 사막의 시골 마을로 이제 막 이사를 온 상태였다.

덕슨 가족이 임대한 집에서는 화목난로로 난방을 해야 했다. 프레도니아의 겨울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장작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장작이나 전기톱도 없었을 뿐더러 전기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와드 회원 몇 명이 데이비드에게 겨울을 날 장작이 충분히 있는지 물어 왔다. 그는 말한다. “회원들은 제게 장작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어요. 장로정원회에서 제가 장작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해서 마음이 북받쳤고, 그분들에게 그레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데이비드는 장작을 모으는 일이 사실 잘 계획되고 조직되어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일반적인 와드 활동의 하나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데이비드와 장로정원회 회원들, 그리고 와드의 다른 회원들은 트레일러를 단 트럭에 나눠 타고 줄지어 산 속으로 향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한다. “단 반나절 만에 회원들의 도구와 요령 덕분에 우리 가족이 겨울을 두 번 정도는 날 만큼의 많은 장작이 모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 장작을 모으기 위해 알아야 하는 모든 기술을 배웠다는 점이지요. 제가 프레도니아를 떠날 때에는 전기톱 다루는 기술이 능숙해져 있었고, 저도 손으로 쪼개기 어려울 만큼 장작 모으기 와드 활동에 여러 번 참석해서 힘을 보탤었어요.”

그러한 와드 활동은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지역 사회 주민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데이비드는 말한다. “당시에 그 지역으로 이사온 지 얼마 안 된 비회원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어쩌나 궁지에 몰리셨는지 그분은 난방을 위해 집 벽에 붙어 있는 나무 장식판자를 태울 정도였어요. 그분의 어려움을 알게 된 후, 우리는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장작을 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프레도니아에서 이루어진 성역을 위한 노력 덕분에 모두가 겨우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들의 사진: 로레나 아테마르 포스테르; 아이스크림과 장기통 사진: GETTY IMAGES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민다

루마니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메그 요스트와 그녀의 동반자는 오랫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던 한 가족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메그는 이렇게 말한다. “스태니카 가족은 루마니아 교회의 초기 회원들이었는데, 저희는 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한번은 지부 활동을 계획하는 시간이었는데, 지도자들은 “개척자의 밤”이라는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솔트레이크밸리로 가기 위해 미국을 횡단했던 용감한 개척자들을 기리는 활동이었다. 이와 동시에 이 활동은 루마니아 교회의 개척자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기회가 되는 자리였다.

메그는 말한다. “이 활동이 몇몇 회원들이 자신의 개종과 루마니아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보아 왔는지에 대한 간증을 나눌 훌륭한 자리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스타니카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곧바로 떠올랐어요. 저희는 그 가족을 초대했고, 그들은 무척 기뻐했죠!”

활동 당일, 시작할 시간이 다 되어서도 스타니카 가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메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들이 오지 않을까 봐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시작하려는 참에 그들이 문에 들어섰어요. 스타니카 가족은 복음과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른 회원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죠.”

지부 회원들은 두 팔 벌려 스타니카 가족을 맞아 주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메그는 교회에 참석한 스타니카 자매를 보고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메그는 이렇게 말한다. “몇 달 후에 지부를 방문했을 때, 자매님이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계셨어요! 자매님이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지부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가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 활동을 통해 성역을 행하기 위한 4가지 아이디어

-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한다:** 활동은 다양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 된다. 개인 또는 그룹의 특정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활동은 또한 서로 더 잘 알기 위한 목적이든, 복음을 더 많이 배우거나 영을 느끼기 위한 목적이든, 참여자들의 필요 사항 역시 충족시켜야 한다.
-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활동을 계획할 때 그 활동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새로운 회원과 저활동 회원, 청소년, 독신 성인,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둔다. 그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초대를 하고, 그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한다.
-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여러분이 초대하는 사람들은 활동에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때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를 유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개인들이 자신의 은사와 기술, 재능을 활동 중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만일 여러분의 친구들이 활동에 참석하게 된다면, 그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최선을 다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환영해 준다! ■

더 알아보기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동영상 “와서 도와 달라고 권유하기”를 시청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봉사하자고 권유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일 수 있는지 알아본다.





마음을 열

“우리는 … 교회 활동과 모임에 참석할 때 … 늘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이 …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단순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진심 어린 미소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 그들을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성역의 영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38쪽.

초대함으로써 성역을 행함

다가오는 와드 또는 지부 활동을 확인한다. 여러분이 성역을 행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고 그들을 활동에 초대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푼 경험이나 성역을 받은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이드바: 케이트
홀브룩 및 매트
그로우, 교회 역사가

교회 역사

힘과 영감의 원천

2018년 9월 9일,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열린 전 세계 영적 모임에서 발췌된 이 기사에서 쿠엔틴 엘 쿡 장로와 교회 역사가인 케이트 홀브룩 자매, 매트 그로우 형제는 전 세계 청년 성인들이 교회 역사에 관해 질문한 내용에 답한다.

쿡 장로: 교회 역사가 신앙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음에도 일부 사람들은 교회 역사를 오해하거나 간과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의심을 자아내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오도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교회 역사를 배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과거와 현재의 성도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도록 한 사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연구한다면 신앙이 깊어지고 복음대로 더 충실히 살고자 하는 소망이 깊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오른쪽 여성 사진: GETTY IMAGES; 맨 오른쪽: 에디슨 프렛과 그의 일지, 프랑수아즈 몰리에르시어, 1844년

과거의 성도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우리가 지닌 사명을 성취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이야기는 희생과 결심과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과 교회사의 일부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생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으며, 그 사명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채우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과거의 성도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우리가 지닌 사명을 성취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온 지난 24년 동안, 총관리 역원 형제님들은 교회사와 교리 면에서 교회가 가능한 한 투명해지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The Joseph Smith Papers* (조셉 스미스 기록들), 복음 주제 관련 글, 교회 역사 주제, 그리고 현재 여러 권으로 발간된 『성도들』 등 새로운 자료를 발표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교회 역사를 진실된 맥락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연구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남태평양으로 간 에디슨 프렛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약 60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메리는 에디슨 프렛이 복음을 가르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투부아이 제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투부아이 제도: 일곱 개의 화산섬과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진 태평양 남부의 섬 무리—웁긴이)

제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그곳의 한 청년이 “저는 7세대 교회 회원이에요.”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유타로 가기에 앞서 에디슨 프렛은 그녀의 먼 조상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혈통을 타고났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이며, 교회 역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와 물문경

제가 십 대 때, 우리 가족은 형이 선교 사업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와드에서 한 번에 청년 한 명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징병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은 한 명을 더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저희 형과 이야기하셨고 형은 집에 와서 그 내용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지만 교회에서 활동적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특이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나 선교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지는 않으셨지만 형이 의대를 준비하던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의대에 갈 준비를 해 왔잖니. 필요한 수업도 들어 왔고 말이다. 네가 의대에 가면 선교 사업을 갔을 때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교회 역사 가운데 논쟁의 소지가 있는 몇 부분에 대해 교회가 더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케이트 홀브룩

제가 네 살 때, 제 어머니와 할머니는 브리검 영이 살던 집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비하이브 하우스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브리검 영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분에게 아내가 많았던 사실도 알려 주셨습니다. 한 10년쯤 지나서야, 저는 조셉 스미스에게도 아내가 여럿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조셉이 물문경을 번역할 때 사용한 선견자의 돌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교회가 정보를 숨겨서가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는 역사 정보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던 탓입니다.

그 대신 저는 일요일 모임과 세미나리 수업을 통해 교회의 주된 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회개하는 법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수립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마땅히 알았어야 할 사실을 뒤늦게야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음을 압니다. 매트와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사람들에게 과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전체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 관한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매트 그로우

저는 지난 9년간 교회를 위해 역사를 기술하는 일을 하며, 우리의 역사를 대하는 총관리 직원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대화의 초점은 “어떻게 역사를 숨기고, 검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역사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보화 시대의 어려움이 답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답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진정한 어려움은 좋은 답과 나쁜 답,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우리 역사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는데, 이런 토론은 대부분 깨달음보다는 과열된 논쟁을 훨씬 더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을 비방하려고만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그 기록을 공정하게 다루려 하는 정보의 출처를 찾으십시오. 과거에서 “꼬투리”를 잡아내고, 맥락은 썩 뻘 채 인용문이나 사건만 가져다가 논란거리로 삼기는 정말 쉽습니다.

역사가로서, 저는 한 영국 소설가의 다음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과거는 마치 외국과도 같아서, 그곳에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 (L. P. Hartley, *The Go-Between* [1953], prologue)

그 말은 과거를 방문할 때는 “색안경을 낀 관광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이 놓인 상황과 문화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그들의 과오라고 판단하지 않고 인내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에 대해 겸손하려고 하며, 과거에 대해 자애로운 마음을 지니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충실하고 훌륭한 형은 저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형이 아버지께 어떤 대답을 드릴지는 결국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셨는가?” 둘째,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셋째,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였는가?” 저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남은 인생 동안 내리게 될 거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구주를 사랑했고 몰몬경도 읽어 왔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는 그날 밤에 기도했고, 성신을 통해 그 질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오하면서도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복수결혼

저는 복수결혼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복수결혼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큰 사랑과 화합도 있었지만 희생도 있었으며, 그런 결혼 관계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희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복수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중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고 많은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둘째, 빌리트 김볼처럼,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²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선임 평의회에서는 복수결혼이 실행된 그 목적을 완수했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를 시행한 성도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이미 완수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계획을 마련하신 사랑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행복의 계획이며,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 구주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기록들은 왜 조금씩 다른가요?

매트 그로우

조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에 관해 서로 다른 네 개의 기록을 손수 기록했거나 서기들에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줄거리는 일관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만일 그 기록들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했다면, 역사가로서 저는 그 점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기억력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은 다른 역사 기록이나 경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사도행전 9:7; 22:9 참조)

또한 성스러운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조셉은 언어를 “작고 좁은 감옥”이라고 했습니다.(in *History of the Church*, 1:299) 여러분이 했던 가장 성스러운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여러 개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찰과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 주제 관련 글에서 첫번째 시현에 대한 네 가지 기록을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몰문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둠밈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케이트 홀브룩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몰문경을 번역했습니다. 몰문경에서 언급된 우리와 둠밈은 판들과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금판을 주면서 우리와 둠밈도 함께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셉이 번역에 사용한 선견자의 돌은 판들과 함께 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셉이 여러 해 전에 발견한 것으로, 영적인 계시에 주파수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셉은 두 가지를 다 사용했습니다.

조셉의 서기 역할을 한 에머 스미스가 이후에 회고한 바에 따르면, 조셉은 자리에 앉아 번역을 다시 시작할 때 “아까 어느 부분을 했죠?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라고 묻지 않고, 중단했던 지점에서 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몰문경을 번역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쓴 개인 일지를 보면, 거기엔 온통 줄을 그어서 지운 단어들, 어설픈 생각,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구슬된 몰문경 페이지를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고 훌륭한 산문체에, 줄을 그어서 지운 것도 없고, 문장도 완벽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 점도 매우 흥미롭지만, 제게 더 중요한 것은 몰문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몰문경에 나오는 베냐민 왕에게서 판단보다는 관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엘마에게서는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침례받을 때 우리는 동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몰문경에 나오는 몰문과 모로나이에게서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 복수결혼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케이트 홀브룩

복수결혼에 관한 물문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주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바는 한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지만, 의로운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 복수결혼을 명하시는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야곱서 2:30 참조) 조셉 스미스에게 복수결혼을 실행하도록 명하신 것도 이 드문 예외에 속합니다. 조셉은 수년간 복수결혼을 시행하기를 주저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조셉은 1830년대 중반에 복수결혼을 실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실제로 그가 자신이 신뢰하는 동료들에게 서서히, 그리고 조금 더 공식적으로 복수결혼을 실행하도록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1841년부터였습니다.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게 해 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그 당시 그들에게 옳은 일이라는 개인적인 영적 증거를 받았습니다.

복수결혼이 공식적으로 실행된 약 50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성인 후기 성도가 실제로 복수결혼을 행했는지 알아내려고 아직까지도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들 중에서 소수만이 복수결혼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중 많은 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독실하고 충실한 회원들이었음을 압니다. 1890년에 월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은 복수결혼 시행을 끝낸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언문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수결혼이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언문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희생을 치렀고, 이 원리에 대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회 회원들은 과거에 복수결혼을 시행한 것이 다음 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승영이나 영원한 영광을 위해 복수결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부일처제가 원칙이며 복수결혼은 예외라는 사실에 감사하지만, 이 원리를 시행한 우리 영적인 선조들의 간증과 명예로운 순종을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으며 이 원리가 옳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약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커틀랜드 성전을 건축하고 헌납한 것이었습니다. 조셉이 계시로 받은 헌납식 기도문이 교리와 성약 10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서 그는 주님께 성도들이 성전을 지으며 바친 노고와 희생을 받아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성전 헌납식을 한 일주일 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또 다른 시현을 받았습니다. 이 시현은 유월절이기도 한 부활절에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현으로 오셔서 그 집을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지[었으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10:6) 그 시현이 닫히고 난 후에, 세 명의 고대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와서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집합하는 열쇠를 회복해 주었고, 일라이어스가 와서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인봉의 권능의 열쇠들을 회복해 주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1~16 참조)

그런 열쇠의 회복은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문경뿐만 아니라 그런 열쇠와 성전 의식들도 필요했습니다. 그 열쇠들이 지금만큼 더 중요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십이사도 중 한 분이 선지자가 되면 그분의 마음이 극적으로 성전 의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리노이주 나부 성전 헌납식에서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성전이 지어진 것에 대해 얼마나 깊이 감격하셨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전을 가져다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기억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님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셨으며 헝클리 회장님과 똑같은 영감을



하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셀 엠 벨슨 회장님도 극적인 방식으로 그와 같은 영감을 받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부여되자, 그분은 성전 의식의 소중함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회장이 되고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자신을 위한 의식을 받고 성약의 길에 머물라는 권고였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그분은 어떤 이유로든 성약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³

“기뻐하라!”

많은 사람이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중에는 선택의지에서 비롯된 어려움도 있고, 대적 때문에 생긴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며, 비록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성전 사업이 어떻게 초기의 후기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까?

매트 그로우

조셉 스미스가 사망했을 때, 나부 성전의 벽은 아직 절반도 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곧 성도들이 다시금 쫓겨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성전이 거의 완공되자마자 성전을 포기하고 떠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이곳에 머물러서 성전을 완공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떠나야 할까요?” 응답이 분명하게 왔습니다. “머무르라.”(see Brigham Young diary, Jan. 24, 1845, Church Archives; Ronald K. Esplin, “Fire in His Bones,” Ensign, Mar. 1993, 46) 엔다우먼트 의식과 인봉 의식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성도들은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내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성전에 쏟아부었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나부 주변에 있던 성도들의 집이 불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완공하며 서부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45년 12월에 성전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성도들은 성전을 부분적으로 헌납하고, 합당한 자들에게 엔다우먼트를 부여하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에게 인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몇 달 동안, 그들은 모든 사람이 서부 대이동을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동일한 권능을 통해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과 과거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인봉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심오하고도 성스럽게 여겨집니다. 그것이야말로 회복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회복과 관련된 사건 중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해 준 사건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케이트 홀브룩

에머 스미스가 미주리에서 박해를 피해 달아나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미시시피강은 군데군데 얼어 있었을 뿐, 가재도구와 사람들을 실은 우마차가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강폭도 넓어서 그 강을 건너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섯 살, 여덟 살짜리 아이들이 각각 어머니의 양쪽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고, 그녀는 한쪽 팔에 두 살배기 아이를, 다른 쪽 팔에는 젓먹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에머는 조셉의 서기와 인척 관계였던 한 여성이 바느질해 준 면 가방 몇 개를 허리춤에 달고 있었습니다. 에머는 치마 속에 매단 그 가방 안에 조셉이 여러 달 동안 작업한 유일한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물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문서와 아이들을 품은 채 얼어붙은 강을 한 발짝씩 내디디며 건너갔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용기와 신앙의 위대한 표징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 그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를 축복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1838년에서 1839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동안 미주리를 탈출해서 나부로 들어간 성도들의 수가 8천 명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겨울 동안 말입니다. 조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리버티 감옥에 있었고 성도들이 겪는 일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경전 구절에 속하는 교리와 성약 121, 122, 123편을 받았습니 다. 그 장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서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짚막하게 다룹니다.

“조셉은 … 무고한 성도들을 대신해 읍소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들이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불법적인 억압을 당해야 당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드러워지지[겠나이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

주님은 조셉을 잊지 않으셨다고 확인해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히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구주께서는 조셉에게 성도들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당신이 겪으신 고통보다는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주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대신 속죄 희생의 일부로서 그들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는 편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 고통을 겪음으로써

자비로워지셨고, 고난 속에서 그분께 의지하는 모든 이를 구하고 단련할 권능을 얻으셨다. 주님은 조셉에게 인내하라고 이르시며, 절대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히버 시 김볼(1801~1868) 장로는 미주리 대법원의 재판관들이 조셉을 석방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반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히버는 리버티 감옥으로 돌아갔지만,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이 나쁜 소식을 조셉에게 고통을 질러서 전해야 했습니다.

조셉은 그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고는 히버에게,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성도들을 멀리 데려가십시오.”라고 지시했습니다.⁴

여기에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성신에 의지하십시오. 리버티 감옥의 조셉과 미주리에서 나부로 피신한 성도들의 모범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힘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저는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그분의 신성하심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방법으로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

devotional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 영적 모임의 전 과정을 시청할 수 있다.

주

1. 이 자료는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See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1945), 327.
3. 리셀 엠 벨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7쪽 참조.
4.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1권, 진리의 표준: 1815-1846』(2018), 389~390쪽; saints.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위: “나부 풍경”, 프랭크 매켈바; “판사에서의 기억”, 줄리 로저스; “리버티 감옥에 있는 조셉 스미스”, 그레그 케이 울슨

인도의 개척자들을 생각하며

타우날린 러더퍼드
브리검 영 대학교 종교 교육 겸임 교수

인도 교회의
개척자
회원들은
개척자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어 린이 노래에 나오듯이 “나는 개척자를 생각할 때마다, 용감한 여성과 남성을 생각한다.” 신앙의 길을 닦은 후기 성도 개척자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나에게 영감이 되었다. 개척자 여성들의 이야기는 내가 젊은 엄마로서 이 후기에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손수레 대신 병원에서 출산했다!

“앞서가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길을 준비하거나 여는 사람”이라는 개척자의 정의는 마차와 손수레

행렬을 따라 시온에 모인 후기 성도 개척자들을 묘사한다.² 그러나 그것은 또한 현대의 개척자들과 그들이 전 세계에 걸쳐 구축한 신앙의 발자취를 묘사하기도 한다.

다섯 자녀가 모두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나는 대학원에서 종교사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로 인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에서 진행한 나의 연구는 개척자들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1993년에 방갈로르에 선교부가 설립되었으며, 그곳에 곧 성전이 세워질 예정이다.

교회의 기둥

오래전인 1986년, 젊은 대학생이었던 나는 브리검 영 대학교의 영 앰배서더[뮤지컬 공연단-웁긴이]와 함께 남아시아를 여행한 적이 있다. 테레사 수녀님과 함께 캘커타(현재 콜카타)에서 하루를 보냈던 것을 비롯해서 이 경험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현대의 개척자 후기 성도들을 만나는 일 또한 매우 흥미로웠다.

그들 중에는 라지 쿠마르라는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1982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 영 앰배서더 공연을 본 후 교회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막 귀환해 있던 참이었다. 그는 여전히 선교사 명찰을 단 채로 델리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 라지는 당시 인도에 있던 600여 명의 회원 중 한 명이었지만, 나에게 그는 수억 명에 달하는 인구의 바다에 사는 한 명의 외로운 후기 성도처럼 보였다.

라지 쿠마르의 모범은 내가 선교 사업을 결정할 때 영감이 되어 주었다. 또한 라지는 일부 인도인



남매인 수완나와 사랄라 카투카는 1984년에 교회에 들어왔으며, 나중에 선교사로 봉사했다.

선교사들이 최초로 자신의 조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닦기도 했다. 수완나 카투카와 그의 동료 선교사들은 쉐나이에서 얼마간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싱가포르에 배치된 그들의 선교부 회장은 라지를 지명하여 델리에서 그들을 추가로 훈련하게 했다.

수완나 카투카는 라지 쿠마르의 모범과 훈련으로 그들의 선교 사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억한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더 큰 신앙과 용기로 무장할 수 있었다. 수완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때가 바로 저의 진정한 개심이 시작된 때입니다. 저는 성신의 영을 느꼈고, 이곳 인도에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³

수완나는 라지문드리에서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다섯 형제와 한 명의 여동생과 함께 1984년에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은 날, 수완나는 제사로 성임되었고 지부 회장단 제2보좌로 성별되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충실하게 남는다면 “인도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받았다.

수완나의 여동생 사랄라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녀는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친구인 스와루파에게 복음을 소개했다. 수완나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여동생의 선교 사업으로 축복을 받아 스와루파와 결혼했다. 라지문드리의 그 작은 지부는 이제 스테이크가 되었다. 라지문드리 출신의 많은 귀환 선교사들은 인도 전역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1986년에 나는 선교 사업을 마친 라지 쿠마르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선교사 명찰을 단 채 들으려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칸다발리, 샤르마, 카투카, 라지 장로.



엘시와 에드윈 다마라주의 가족이 침례를 받던 날.

인도의 많은
교회 회원들은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진정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나는 2014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수완나와 스와루파 카투카 부부의 자녀들을 만났다. 조시 카투카는 최근에 인도 방갈로르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그의 여동생 팀나는 그 무렵 같은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팀나와 조시에게 라지 쿠마르를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네, 그분은 저희 삼촌이에요.”라고 말했다. 라지 쿠마르는 사랄라와 결혼했다.

내가 인도 여행을 하는 동안 도움을 주고 여러 개척자를 소개해 준 카투카 가족에게 감사한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카투카 가족의 사랑과 모범에 힘입어 개척자의 길을 걸었다. 한때 수완나와 스와루파는 캐나다로 이주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인도에 머물며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회를 거절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진정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벵갈루루와 하이데라바드의 개척자 회원들

20세기 후반, 개척자 회원들을 통해 인도의 여러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⁴ 각각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회복된 복음으로 인도해 오고 계시는지를 증명한다.

방갈로르(현재 벵갈루루)의 개척자 회원인 마이클 앤서니는 1970년에 기적적으로 교회 회원과 인연을 맺었다. 유타주에서 감독으로 봉사하던 텔빈 폰드는 허리 통증 때문에 물리 치료사를 찾아갔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인도의 학생들을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관한 잡지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그 학생들 중 한 명을 지원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것을 계기로 10년 동안 익명의 서신 왕래가 시작되었으며, 마침내 폰드 가족이 마이클과 접촉하면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마이클은 1981년에 침례를 받고 1982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어머니가 위중하여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선교사 임기의 마지막 3개월을 방갈로르에서 봉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친구 여러 명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그들은 그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지부의 회원이 되었다.⁵ 현재는 벵갈루루에 성전을 건립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멜윈 폰드(가운데)가 1981년에 마이클 앤서니에게 교회를 소개했다.



하이데라바드시에는 8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도의 첫 스테이크가 세워졌다.

엘시와 에드윈 다마라주 부부는 사모아에서 교회에 들어왔다. 그들은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에게 부름을 받아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가족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다. 1978년에 엘시와 에드윈의 가족 중 22명이 침례를 받았고, 이것이 시초가 되어 2012년에는 하이데라바드에서 인도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⁶

오늘날 하이데라바드 스테이크 회원들은 자신들을 후기의 개척자로 생각한다. 스테이크 개척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그들은 초기 개척자들의 여정과 더불어 현대 개척자들의 여정을 기념했다. 이 행사에서는 스퀘어 댄스, 기념 하이킹, 손수레 타기가 진행되었다.

2014년 개척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그들은 교회 뒤쪽에 얼음덩어리를 일렬로 줄지어 놓아두고는 회원들에게 신발을 벗고 얼음 위를 가로질러 걸으며 초기 개척자들이 어떻게 얼음장 같은 차가운 강물을 건넜는지 생각해 보게 했다. 축하 행사가 마무리될 때, 하이데라바드 스테이크 회원들은 초기 개척자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가족을 위한 개척자”임을 기억하라는 권고를 받았다.⁷

그들은 또한 당시 선교부 회장단에서 봉사하던 존 산토시 무랄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큰아버지 내외인 엘시와 에드윈 다마라주가 어떤 연고로 하이데라바드에 와서 그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쳤는지를 이야기했다. 존은 1978년에 침례를 받은 22명의 개척자 중 가장 어린 회원이었다.

2014년에 내가 하이데라바드를 방문했을 때, 존 무랄라는 자신의 이야기와 그가 부지런히 모아 온 교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아내 안나푸르나를 나에게 소개했는데, 그녀는 내가 들어 본 가장 감동적인 후기 개척자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주었다.

안나푸르나가 열두 살이었던 1991년, 그녀의 남동생 머시는 하이데라바드에서 두 명의 선교사에게 복음을 배웠다. 그러나 안나푸르나의 부모님은 그녀가 선교사의



하이데라바드의 개척자 회원인 안나푸르나와 존 무랄라가 손수레 부대 재현 행사를 돕는 모습과 홍콩 성전에서 인봉되던 날의 모습.



인도 최초의 스테이크인 하이데라바드 스테이크 회원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손수레를 타면서 개척자의 날을 기념한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이 2012년에 조직한 인도 하이데라바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센터

인도의 교회
회원들은 인내하며
복음대로
생활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그들
가족을 위한
개척자로 여긴다.

이야기를 듣거나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머시는 그녀에게 물문경을 주었고, 그녀가 읽을 수 있게 교회 서적도 계속 가져다주었다. 안나푸르나는 7년 동안 스스로 복음을 공부하고 진리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었다. 그녀는 침례를 받고,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하기를 꿈꾸었지만,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는 못했다.

안나푸르나가 존 무랄라를 소개받았을 때, 그녀는 인생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존은 1978년에 침례를 받고 계속해서 간증을 굳건히 지켰으며, 자신과 결혼할 교회 회원을 찾고 있었다. 안나푸르나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던 아주 짧은 모임이 끝난 후, 존은 자신이 미래의 아내를 만났다고 확신했다. 안나푸르나는 존과 결혼하면 침례를 받고 언젠가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 무렵에 안나푸르나의 부모님은 그녀의 결혼을 주선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안나푸르나는 집을 떠나 존과 결혼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가 보기에 그것이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도 그녀는 이렇게 단언한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 나의 후손과 나의 부모님과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그들의 성전 사업을 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⁸

존과 안나푸르나는 이제 그녀의 부모가 그들의 결혼을 받아들인 것에 감사드린다. 초기 개척자들이 그랬듯이, 인도의 많은 회원은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 저마다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휘장 양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개척자이자, 그들의 연결 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복음의 새로운 변방에서 길을 개척한 회원들에게서 들었던 신앙, 희생, 용기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여전히 손수레를 끌며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강물을 건너는 개척자들을 생각하지만, 이제는 인도와 전 세계에 있는 현대의



인도 뵙갈루루 성전의 투시도. 이 성전 부지에는 또한 집회소, 배부 센터, 교회 사무실 및 성전 참여자 숙소가 세워질 예정이다.

개척자들도 함께 떠올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개척자의 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닦아 왔다. 신약전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개척자”로 불리신다.(see Hebrews 2:10,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후기에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이끌고 계시며, 진정한 개척자는 그분을 따르고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

주

1. “Whenever I Think about Pioneers,” *Children’s Songbook*, 222–23.
2. *Oxford English Dictionary*(1971), “Pioneer.” 또한 토마스 에스 몬슨, “영적인 개척자들에 의해 인도됨,” 『리아호나』, 2006년 8월호, 3쪽 참조.
3. 수완나 카투카, 타우날린 리더퍼드의 구술사 인터뷰, 2014년 5월, 인도 텔리.
4. 인도 개척자에 관한 많은 이야기는 복음 자료실 앱의 교회 역사에 있는 “Global Histories”에서 읽을 수 있다.
5. See “A History of the Church in India,” comp. Jerry C. Garlock (unpublished, 1995), 49–50.
6. See “I Will Establish a Church by Your Hand,”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
7. See “Hyderabad Stake Pioneer Day Activity,” lds.org.in/hyderabad-stake-pioneer-day-activity.
8. 안나푸르나 구루 무랄라, 타우날린 리더퍼드의 구술사 인터뷰, 인도 하이데라바드, 2014년 5월 7일, 또한 로셀 웰티와 쟈 윈보로우,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30~32쪽 참조.



트래비스 이웰

몇 해 전에 나는 소셜 미디어로 예전에 선교 사업을 같이 했던 동반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는 교회와 교회 교리에 관한 의문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그들이 둘 다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이 금세 분명해졌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웠다. 그들의 토론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는 내가 처음 들어 보는 내용이었다. 그게 조금이라도 신빙성이 있는 것들이라면 나도 알아 두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우려하던 사람들의 논쟁을 조사해 보기 시작했다.

이후 2년에 걸쳐 내가 읽어 본 일부 자료들 때문에 나는 교회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느낀다. 신앙을 잃은 것을 비통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화가 났다. 교회가 나를 속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이 진짜인지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었고, 나는 부름에서 해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내 세리와도, 가족과도 관계도 결끄러워졌다. 계속 교회는 나갔지만, 그것은 그저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고, 가족을 하나로 지키려는 노력일 뿐이었다. 삶이 엉망이었다. 영을 느낄 수도 없었고 성신을 정말 느껴 본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장남인 케이스이 선교 사업을 떠날 때, 기쁜 행사여야 할 그 일에 내가 우울한 구름을 드리웠다. 2년 후, 우리 가족 대부분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처음으로 성전에 가는 케이스를 위해 모두들 함께 성전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 없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너무도 외로웠다.

나를 둘러싼 이들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

어느 날, 내 형제들이 함께 모여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한 말은 사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일이 사랑에서 우리란 일이라는 것만은 알았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 일이 변화의

교회에 대해 내가 속았다고 느꼈을 때

교회를 떠난 이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온 이유.

기폭제가 되었다. 케이스를 장로로 성임한 사람은 나였어야 했다. 성전에서 아들을 안내해 줄 사람도, 아들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주는 사람도 나였어야만 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함께하기로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다. 나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묻는 기억이 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좋은 친구가 자기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에게 나를 소개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그 친절한 사람은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 주었다. 그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는 것 같았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이야기, 내 의문, 내가 접한 논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와 나눴던 내용과 너무도 비슷했다. 나는 내가 우려한 많은 문제에 합리적인 답이 있고, 내가 품은 많은 의문이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손상할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심어 놓은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모든 질문과 우려가 즉시 해결되었을까? 물론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졌다. 질문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어떤 질문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기도 하다.¹ 풀리지 않은 몇 가지 의문이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내 지위를 잃는 것만큼 가치가 있었는가? 우선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최우선 순위에 놓았을 때, 나는 내가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우리 스테이크 회장님과 감독님도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나와 세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과 회장 양편에 있는 내 가족이 나를 돕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사랑하심을 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가는 길에 두신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있다면 해야 할 일

나는 다른 곳에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안다. 그들이 여러분일 수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나는 구주께서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분께 돌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과 성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 사탄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일한다.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자아내기는 쉽다.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답에 의존하는 것이 스스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다.(교리와 성약 88:118; 강조체 추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연구와 신앙을 통한 방식이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나 신앙에 대한 질문이나 의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교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만든 블로그 혹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피상적인 대답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우선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최우선 순위에
놓았을 때, 나는 내가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질문은 잠시 접어두라”는 제안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빌려온 빛만으로는 살 수 없으며, 그 대신 우리는 모든 빛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교리와 성약 93:26 참조)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 하지만, 또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옳은지를 하나님께 여쭙어 보아야 한다.(교리와 성약 9:8 참조)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조셉 스미스—역사 1:20 참조) 스스로 배워야 하며, 답을 찾는 일에서 인내해야 한다.(앨마서 32:41 참조) 그러나 신앙으로 배운다는 것은 진리대로 생활함으로써 진리를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요한복음 7:17; 데살로니가전서 5:21 참조)

교회에 적대적인 내용들을 연구하고 있었을 때, 나는 문자 그대로 어둠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니파이전서 8:23~24; 12:17 참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을 때,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당신의 영을 보내어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다.



답을 얻지 못한 질문 VS 교리적 확실성

“저는 인간이 지닌 어느 정도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필멸의 존재인 인간이 결점을 지닌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또한 물문경에 반하는 근거 없는 과학적인 주장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정정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례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부 역사적 사실을 용납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진리 전체를 놓고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된 교리적 진리와 의심 없이 살 수 없으며, 제 가족을 축복할 하나님의 신권 없이 살 수 없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인봉되는 지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선택은 답을 얻지 못한 몇 가지 질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무수한 교리적 확실성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는 “그리스도 교회의 설계도는 무엇일까요?”라는 이 말씀을 할 당시 칠십인 회장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교회 교육 기구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영적 모임, 2014년 1월 12일), broadcasts.ChurchofJesusChrist.org

희망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케이슨이 선교 사업을 떠나고 몇 주 후에 스테이크 회장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사이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성전 추천서를 새로 받고 싶다고 말했다. 회장님은 추천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겠는지를 물으셨다. 나는 이렇게 고백했다. “회장님, 아직은 교회가 참됨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참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희망에 따라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회장님은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다. “트레비스 형제님, 그것만으로도 언제나 충분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매우 분명해졌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한동안 방향도 하고 고민도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희망을 통해 그분께로 이어지는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 또한 나는 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주

1. See Lawrence E. Corbridge, “Stand Forever,”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an. 22, 2019), speeches.byu.edu.

사랑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제언

나처럼 질문이나 의심을 품은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또는 그 외의 다른 이들에게 문을 닫아 버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언제 구주께 돌아와 치유받을지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계속하여 성역을 베풀”라고 명하셨다.(제3니파이 18:22~32 참조)

의심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선택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1. 계속 사랑한다.** 나는 의심과 씨름하는 내내 내가 외톨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가족이나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써 나는 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 계속 손을 내민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그들의 믿음이나 교회 참여 여부,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마태복음 5:46~47 참조)
- 3. 계속 희망을 품는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켜보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각 자녀가 구원받을 길을 마련하셨습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내 손주들에게”,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71쪽)
- 4. 그들의 선택의지를 존중한다.** 희망을 품되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거나 교리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탕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 많은 사람도 인생에서 먼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줄 어떤 일이 필요하다.
- 5. 그들을 품위 있게 대하고, 나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말은 피한다. 합리적인 사람들도 우리와 믿음이 다를 수 있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동일한 존중심을 우리도 그들에게 가져야 한다.

아직은 교회가 참됨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희망에 따라 삶을 살고자 합니다.

너는 사랑하라, 구원은 그분께서 하시리라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그리고 해방감을 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크리스타 로저스 모텐슨

남편과 나는 복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웠다. 우리는 아침마다 가족 경전 공부를 하고, 가족 기도를 드리고, 가정의 밤도 매주 했으며, 같이 교회에 참석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 휴가도 다녔다. 아이들은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했고, 세미나리를 졸업했고, 두 명은 선교사로도 봉사했다.

그러나 후에 성인이 된 그들은 우리가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과 사상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하나씩 교회 참석을 관두었다. 결국은 다섯 아이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회를 떠났다. 우리는 아이들 문제로 슬프게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부모로서 실패한 것인지, 혹은 뭔가 다르게 할 수 있지는 않았는지 알고 싶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부디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은 아니었다.

주님은 단순히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대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셨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서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들의 구주이자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이다.

아이들을 구원하겠다고 결심한 나는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성전에 가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모두 다 하면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리라고 여겼다. 마치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아이들의 선택의지를 무시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와 믿음을 같이하도록 어떻게든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한 것이다.

남편과 나는 아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하려는 방식은 설교나 잔소리, 또는 그들의 선택에 반대하는 것에 더 가까웠고, 그런 방식은 결국 다툼만 불러왔다. 우리는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실제로는 그들을 더 멀리 내쫓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자신들에



내게 도움이 된 것

대해 판단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아이들은 우리를 더 피할 뿐이었다.

나의 기도는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간청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아이들의 변화를 바라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기도했다. 또한 나는 수치심과 당혹스러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자녀의 성전 결혼사진, 손자녀 침례식 사진으로 장식된 친구들의 소셜 미디어 속 완벽한 가족과 우리 가족이 동떨어져 보일 때 느끼는 그런 감정 말이다.

치유받기 위해 구주께 의지하자, 아이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구주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려면 내가 몇 가지 면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구주께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성역의 동기였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니파이후서 26:24)

당신의 사업을 행하시는 구주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서(니파이후서 27:20 참조),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구원은 주님께 맡겨 둘 수 있었다. 자녀들을 도우려는 노력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과 소통하는 주된 이유가 되자, 소통에 임하는 나의 방식도 변화했다.

나는 아이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장점과 재능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관대하며, 지적이고, 선한 사람들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남편과 나는 더 많이 경청하고, 말은 줄였다. 우리는 자녀들의 삶과 관심사를 알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대신 호기심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비판하고 실망하는 대신 사랑을 표현했고, 아이들은 그런 우리의 사랑 표현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가정은 자녀들이 사랑과 포용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아이들은 더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지

기도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청한다



관점

자녀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사랑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경청한다



신뢰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은 협력 관계에 있다

않았으며,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솔직하게 스스럼없이 터놓고 시작했다.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발전하는 여정 중에 있지만, 이제 아이들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아이들은 우리 앞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며, 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사는 동안 아이들이 어릴 적 배웠던 복음으로 되돌아올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구주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자신의 어려움을 제쳐둔 사람들

내털리 존스, 미국 유타주

그날 켈드라와 브렌트와 타이슨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역을 행하는 진정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나 구나 인생에서 굴곡을 겪기 마련이지만, 2013년은 우리 가족에게 특히나 힘든 해였다. 우리는 집과 자동차를 수리하느라 예기치 않게 여러 번 큰 돈을 써야 했다. 게다가 남편 라이언은 실직했고, 막내아들은 합병증을 갖고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몇 주간 입원도 했다. 그리고 나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린 네 자녀를 기르는 일에 이런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엄청난 짐을 지게 되었다.

나중에 라이언은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근무 시간이 길고 한 번에 몇 주씩 출장을 가야 했다. 다섯 살짜리 아들 웨슬리는

아빠가 너무 자주 집을 비우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웨슬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 깨기를 반복했다.

친척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지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며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떨치지는 못했다.

라이언이 출장 중이던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던 길에 나는 차 안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간구했다. 그날 저녁, 이웃인 켈드라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켈드라는 내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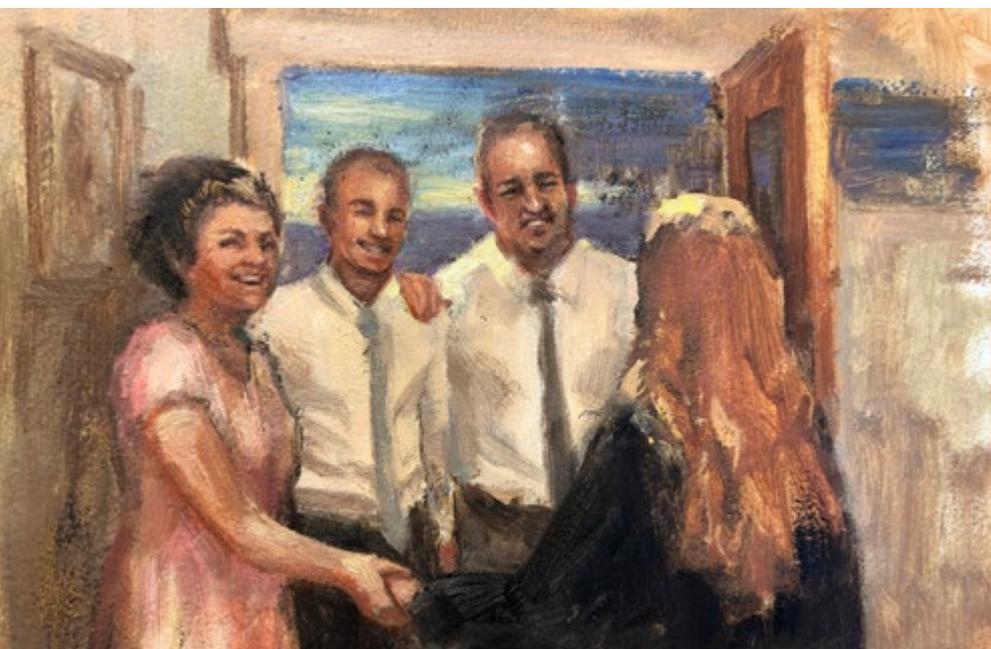
켈드라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웬만해선 켈드라에게는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켈드라는 남편이 4년째 암 투병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켈드라는 진지하게 되물었고, 결국 나는 눈물을 알각 쏟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웨슬리의 불안증과 악몽에 대해 말하자, 켈드라는 혹시 자기 남편이 웨슬리에게 축복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얼마 후, 켈드라와 그녀의 남편 브렌트, 그리고 두 사람의 장남인 타이슨이 안식일 복장을 하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브렌트는 쓰러질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 집까지 오느라 온 힘을 쥐어 짜야 했을 게 분명했다. 브렌트는 웨슬리에게, 타이슨은 나에게 축복을 주었다.

그날 켈드라와 브렌트와 타이슨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역의 진정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제쳐두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연민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애정 어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큰 축복으로 느껴졌다. 브렌트는 2주 후에 세상을 떠났다.

브렌트는 바로 그날 우리 집에서 신권을 의롭게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모사이야서 18:9) 브렌트가 우리 가족에게 행했던 성역이 그가 지상에서 행한 마지막 성역 중 하나였다는 점이 내게는 한없이 성스럽게 느껴진다. ■



용감한 이등병

웨인 엘 벨,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아무도 감히 훈련 교관에게 대답하려 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한 청년이 손을 들었다.

아주 오래전에 나는 조국에 봉사하고자 미 공군에 입대했다. 나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신병 훈련소 생활을 시작했다. 신병 훈련소에서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여러 상황을 참고 견디며 몇 주가 더디게 흘러갔다.

우리 200여 명의 공군 이등병들이 집합해서 단체 훈련을 받던 어느 날이었다. 훈련 교관 중 한 명이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고향을 지르고 상스러운 말을 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대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 있나?”

물론 아무도 감히 훈련 교관에게 대답하려 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한 청년이 손을 들었다.

교관이 소리쳤다. “이등병, 기립! 무엇에 반대하나?”

청년이 외치는 그 우렁찬 목소리가 우리 모두의 귀에 꽂혔다. “저는 교관님께서 저의 구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말이 제 영혼에 상처가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방에는 정적이 흘렀다. 교관은 그를 응시하며 무슨 종교를 믿는지 물었다. 그 용감한 이등병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입니다!”

교관은 이등병에게 용기를 내어 그 말을 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했고, 곧 훈련이 이어졌다. 그의 행동은 내게 지대한 영향을

신병 훈련소에서 봤던 그 용감한 이등병을 떠올렸다. 우리 부부는 선교사들을 만났고, 곧 침례를 받았다.



미쳤다. 종종 그 이등병과 같은 용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병 훈련소와 의료 훈련을 모두 마친 후, 나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공군 기지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필리핀에 주둔 중인 큰형에게서 편지가 왔다. 형은 내가 입대하기 1년 전에 공군에 입대했다. 형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며, 나보고 선교사들을 만나 보라고 했다. 나는 즉시

몇 개월 후, 나는 선교사들에게 내 남동생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다. 동생 부부도 침례를 받았다. 우리 형제들은 이제 대가족을 이뤘고 손주들도 있다. 우리는 모두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그 용감한 이등병의 이름을 모른다.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지만, 자기 믿음을 수호하려 한 그의 용기에 나는 영원토록 감사할 것이다. ■

약속을 기다리며

후아나 모레노 데 루이스, 멕시코 소노라

내 딸은 교회에서 멀어졌지만, 나는 그 아이가 복음에 대해 배운 것들로 축복받을 것임을 안다.

나는 21번째 생일을 3개월 앞두고서 어머니와 여동생, 여덟 살짜리 조카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굳게 붙잡았다.

결혼을 하면서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기로 굳건히 다짐했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훌륭한 부모가 되고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나는 한 살배기 딸을 데리고 한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에서 지역 칠십인 한 분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으나 여러분의 자녀 하나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렇다 해도 그들은 가정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한 기억 덕분에 여전히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 칠십인의 말씀은 당시 교회를 떠난 조카들을 두고 있던 나에게 희망이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 내가 그 대회에서 안고 있던 한 살배기 딸아이가 17세 때 교회를 떠났다. 딸은 복음에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람과 만났고, 둘은 결혼했다. 딸은 그 이후로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 일로 나는 무척 고통스러웠다. 우리 부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남편과 나는 항상 계명을 지키며

교회에서 봉사하려 노력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란다. 수많은 눈물과 질문 끝에, 우리는 마침내 자녀는 커서 자신들의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집에서 배우는 것을 늘 믿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행히도 딸의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고, 그 아이는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뿐이다. 딸이 집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축복받게 되리라는 약속 말이다.

나는 늘 딸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딸을 사랑한다.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이를 보면 마음이 쓰라리다. 나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내가 딸에게 가르친 것들은 옳고 참되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내 역할을 한다면 그분께서 옳다고 느끼시는 때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안다. ■



“누가 내 아들을 쳤나요?”

샌드라 비티, 캐나다 온타리오주

아들을 친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다 운전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딸을 친구 집에 내려 주자마자 남편 조너선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너선과 11살 난 우리 아들 에이든이 함께 길을 건너다 에이든이 차에 치였다는 전화였다.

운전자는 조너선 앞에서 좌회전을 했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에이든을 보지 못한 것이다. 운전자는 에이든의 자전거 앞쪽을 들이받았다. 에이든은 자전거를 잡은 채로 공중으로 날아가 떨어지면서 차 옆쪽에 머리를 부딪히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 그 위로 자전거마저 쓰러지면서 에이든이 깔렸다. 다행인 건 에이든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너선이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운전자와 몇몇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멈춰 섰다.

나는 생각과 감정이 갑자기 미친 듯 날뛰었다. 나는 에이든 옆에 있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구급차가 떠나기 전에 도착하려고 사고가 난 교차로를 향해 속도를 냈다.

운전자에게 화를 퍼붓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런 생각도 들었다. ‘취한 건가? 통화라도 하고 있었던 거야?’ 분노가 올라오고, 걱정스러워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에이든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구급차가 이미 떠난 뒤였다. 현장에는 경찰차 몇 대와 도로 옆에 주차된 차 한 대만 남아 있었다. 차 옆에는 낮빛이 어두운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혹시 누가 제 아들을 쳤는지 보셨나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들을 친 부주의한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내 모습을 상상했지만, 운전자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졌다. 나는 울면서 그녀를 안아 줬다. 그녀는 사과했고, 나는 다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에이든도 그녀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에이든의 부상은 찰과상과 멍 정도에서 그쳤다.

내가 부탁드리지 않았음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내게 중요 대신 용서를 베풀 힘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나는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고 항상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 ■





앨마서 23~29장
6월 29일~7월 5일

이름은 왜 중요한가?

개 종한 뒤, 충실한 레이맨인들은 자신들을 다른 레이맨인들과 구별 짓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음을 상징할 새로운 이름을 원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엔타이-니파이-리하이인이라 불렀다.(앨마서 23:16~17 참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 짓는다.

개심의 상징



침례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로 성약을 맺는다. 그리고 성찬을 취할 때마다 그 성약을 새롭게 한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무엇을 기억하고 행하겠다고 성약하는가?(모사이야서 18:8~9;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들은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된다.(교리와 성약 107:23)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과 나란히 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힘의 원천



최근에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우리에게 교회를 정확한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부르도록 간곡히 요청했다. 넬슨 회장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권능이 성도들에게 부여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회의 정확한 명칭”,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9쪽) 교회의 정확한 이름을 더 잘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토론

매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제자로서 더 발전하고 싶다는 동기 부여를 받게 되는가?





앨마서 30~31장
7월 6일~12일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적 그리스도였던 코리호어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들을 거스”르는 가르침을 전파했다.(앨마서 30:6) 그는 다른 거짓들도 전파하여 “많은 자의 마음을 이끌어” 냈다.(앨마서 30:18)

이는 20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그와 비슷한 가르침을 전파한다.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토론
오늘날에는 누가 거짓을 가르치는가? 그들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거짓에 대항하고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는가?

▶ **자신만의 간증을 얻는다**

코리호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없을 것”이며 “속죄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했다.(앨마서 30:12, 17, 28 참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해 준 경전 구절 혹은 개인적인 경험은 무엇인가?

▶ **계시에 의지한다**

코리호어는 예언과 계시의 영을 부인했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도 장차 임할 일을 알 수 없”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고 믿게 만들려 애썼다.(앨마서 30:13, 15)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선지자와 사도들을 바라볼 수 있다. 선지자를 따를 때, 어떻게 우리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진리는 여전히 진리임을 기억한다**

코리호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된지 스스로 알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앨마서 30:24 참조) 하지만 리셀 엠 벨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몇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진리는 하나님께서 ... 세우신 율법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영원한 율법은 우리 각자의 삶에 작용하고 영향을 미칩니다.”(“The Love and Laws of Go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Sept. 17, 2019], speeches.byu.edu)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진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가?





엘마서 32~35장

7월 13일~19일

엘마는 왜 모세와 눅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가?



엘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자(엘마서
32:28~43 참조)

사람들은 그 씨앗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엘마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본보기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와 눅뱀 이야기를
인용했다.(엘마서 33:19~23 참조)

토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바라보기만 하면 나올 수 있었다.
“바라보는” 것처럼 쉽게 느껴지는
복음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때로 우리가 단순한 복음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 요인이
되는 태도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매일 하는 경험
속에서 어떻게 구주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예표

예표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나타내거나 미리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독사에 물렸을
때 눅뱀을 높이 들어 올렸는데, 이 눅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신앙을 행사하여 눅뱀을 바라본 이들은
치유되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치유될 것이다.

일부 백성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눅뱀을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마저도 거부했고,
그 결과 목숨을 잃었다. 왜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는가?(엘마서 33:20 참조) 이 이야기는 신앙과
불신앙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은 치유를 받았는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단순한 행위로
치유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엘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졌으며,
구주를 바라보기 위해 그분을 믿으라고
권유한다.(엘마서 33:21~22 참조)



엘마서 36~38장
7월 20일~26일

회개는 어떻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가?

엘마는 아들 힐라맨에게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엘마는 “[자신의] 모든 죄와 불의” 때문에 “영원한 괴로움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지를 이야기했다.(엘마서 36:12~13) 죄를 지어 죄책감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남

사흘 동안 영혼의 고통을 겪은 후, 엘마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고, 그러자 그가 느끼던 고통이 사라졌다.(엘마서 36:19 참조) 엘마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간증했다.(엘마서 36:23) 엘마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록 이끈 생각은 무엇이었는가?(18절 참조)

큰 슬픔 후에 기쁨이 찾아옴

엘마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심히 슬퍼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부르짖자, 그 슬픔은 용서를 받은 데서 오는 감미롭고 심히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엘마서 36:20 참조)

토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더 많은 영혼을 회개로 이끌어 그들이 위대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함으로써, 엘마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마지막 날에 들리우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엘마서 36:3 참조) 구주의 속죄를 기억하고 그 힘에 의지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경험했는가?

동성에게 끌리는 내가

교회 회원들에게 다시 환영받을 수 있을까?

밥 버스티지

글쓴이의 말: 나를 기꺼이 반겨 주고, 완전히 활동화되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동료 제자로서 함께 봉사해 준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25 년 간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준 제이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다가 2013년 7월 27일에 세상을 떠났다. 제이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심장병 전문의였다. 우리는 둘 다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로서 봉사했으나 동성 연애 문제로 교회에서 멀어졌다.

제이의 죽음이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충격은 컸다. 나는 비통했고, 길을 잃었고, 혼자라고 느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던 길에 나는 압도하는 듯한 영의 영향력을 느껴 길가에 정차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분은 돌아오라며 나를 부르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저항했다. “제가 고통받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는 외쳤다. “당장은 교회에 돌아가는 걸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항하면 할수록 영은 내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회로 돌아오라고 권했다.





내가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교회로 돌아가는 문제로 나는 깊게 근심했다. 나는 지난 25년간 성찬식에 가지 않았다. 회원들이 나를 받아 주기는 할까? 감독님은 뭐라고 하실까? 나는 불안하고 마음이 어수선했으며 여전히 슬픔에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복음에 대한 내 간증은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었다. 제이와 나는 이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중심 원리인 사랑과 자비, 용서를 사랑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의 교회는 그 어디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것을 알았다. 개종해서 침례를 받았던 열네 살 시절부터 알고 있던 것이었다. 이제 와서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었다.

결국 나는 애써 용기를 내어 미국 뉴저지 린우드 와드에 전화를 걸어 성찬식 모임 시간을 알아보았다.

일요일이 가까워지자, 사탄은 내가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들을 놓기 시작했다. 성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긴장이 되었지만, 성찬식 모임 개최 찬송을 부르자 집에 돌아왔다는 확신이 들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를 부르자 영이 임했다. 그 느낌이 너무도 강력해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느끼는 깊은 슬픔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즉각 알 수 있었다.

이 찬송가는 교회에서 일종의 비공식적인 성가 같은 노래이긴 하지만,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성가가 되었다.

“오라.” 이 찬송가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이 여행이 혹 힘들어 보일지라도 은혜가 네 삶에 가득하리니.”[1절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함—옮긴이]

나의 여정은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약속된 바와 같이 실제로 은혜가 나와 함께했다.



모든 자격을 갖춘 회원

“그리스도 복음의 성약과 표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설사 동성에게 끌리는 문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온전히

활동적이고 모든 자격을 갖춘 회원이 되고, 부름을 받고, 말씀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기회와 축복들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LGBT People Who Live God’s Laws Can Fully Participate in the Church” (video), mormonandgay.ChurchofJesusChrist.org

대런 버드 감독님과 다른 모든 회원들은 훌륭한 분들이었다. 그분들은 나를 따스이 맞아 주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들의 형제로서 받아 주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함

내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하는지 하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의 가사가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저 서편에 하나님 준비한
그 땅에 가리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리
성도들 복된 곳

나는 서부로 가서 미국 애리조나 파운틴힐스에 집을 구했고, 거기서 제리 올슨 감독님을 만났다. 올슨 감독님을 만나 악수를 나누었을 때, 영은 이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완전히 활동화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감독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게 되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고, 나는 여러 번이나 영적인

기적을 목격하였다. 나는 감독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감독님은 그런 나에게 감사를 표하셨다. 감독님은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분은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에게 성역을 베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친절하게 말씀하시며, 만약 회개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이 하는 언행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생긴다면 인내하고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도 처음인걸요. 함께 배워 나가면 될 거예요.”

그리하여, 멋진 여행과 우정이 시작되었다!

곧 나는 다시 회원이 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세웠다. 나는 감독님께서 사랑과 기도로 주시는 권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회개 과정을 시작했다.

성전에서 느낀 위안

시간이 흘러, 나는 감독님의 권고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결국 신권과 성전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었고, 장로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도 받았다. 거룩한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분은 당신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내게 보여 주셨다. 나는 위안을 얻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는 깊은 소망을 느꼈다.

몇 달 후에는 새로운 감독님이 부름을 받으셨다. 나는 새로운 감독님과도 멋진 우정을 쌓았다. 래리 레드포드 감독님은 내가 처한 상황을 아셨다. 감독님은 내가 장로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셨다. 그분은 사랑과 헌신으로

성령: 제니 펠리시오



행했던 나의 봉사가 단지 장로 정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셨다. 그분의 친절한 말씀과 격려 덕분에 나는 내가 하는 봉사가 주님과 나의 동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와드 서기로서 충실히 봉사하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일

동성에게 끌리면서 교회의 활동 회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비평가들은 분명 내가 정체성을 따르지 않고 있다거나 성소수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느낄 실망감을 이해한다. 그리고 나도 모든 답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나는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 말할 뿐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내게 의미 있는 꼬리표다. 따라서 나는 세상이 내게 붙이는 꼬리표가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두었다가는 내 잠재력과 영원한 발전에 제한이 생기게 될까 봐 두렵다.

사탄은 매우 영리하다. 사탄은 꼬리표를 이용해서 지역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동성에게 끌리는 내 성향에 근거하여 선택을 내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동성에게 끌리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인가에 근거하여 선택한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 ...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리이다. 참으로 내가 잘못 구하지 아니할진대,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의 음성을 높이리이다. 참으로 내가 주께 곧 나의 하나님 내 의의 반석에게 부르짖으리이다. 보소서, 나의 음성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께 영원토록 올라가리이다.”(니파이후서 4:34~35)

동료 성도들의 사랑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는 지도자들과 동료 성도들의 따스한 형제애를 느꼈다. 나는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나는 항상 내 신앙과 연관지어 생각하던 그리스도의 속성들을 그들에게서 찾아냈다. 즉 자비, 연민,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것이다.

구주와 함께하는 길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께 의지하면 위안과 평안을 느꼈으며, 그 길을 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 감독님들이

내 곁에 있어 주셨다. 우리 정원회 회원들도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우리 와드의 자매들도 그래 주었다. 심지어 우리 와드의 한 청남은 제사 성임 의식을 내게 부탁하기도 했다. 그 친구의 친절한 부탁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 청남은 나를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형제로서, 그리고 그 신권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형제로서 봐 주었다.

동료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예배하는 기회들을 통해 나는 고양되었다. 나는 주님께 받은 많은 축복과 더불어 내가 필요로 하던 사랑과 이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구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4:18) 이 말씀은 참되다. 내게 위안이 필요했을 때 그분은 내게로 오셨으며,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다. ■



복음의 천막

“복음의 천막은 주님을 따르려는 소망을 지닌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큼니다. 이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밥 버스티지 형제를 만나 함께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티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적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본보기입니다. 저는 감독으로서 이 겸손한 형제 덕분에 매일 고양되고, 가르침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래리 레드포드 감독, 스카츠데일 애리조나 북 스테이크, 파운틴힐스 와드

이번 호 이야기

46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교육을 받길 바라셨던 이유
글로리아 코르벨리오

50 미래의 문제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로라 캠페너

온라인 전용

의로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마크 데오 델라 크루스

돈을 저축하는 방법, 이유, 시기 및 장소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5가지 진리
멕 요스트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불확실한 미래를 신앙으로 마주하라

저는 계획을 잘 짜는 편입니다.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게 좋습니다.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미래가 너무 멀고 불확실할 때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삶은 방대합니다. 다가올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가능성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원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배우자를 얻고 싶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살아 보고 싶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고, 소설을 쓰고 싶고, 러시아어도 배워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과 목표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압니다. 우선순위도 변합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분의 선견지명으로 **우리는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가 의문투성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에 한 걸음씩 해답을 찾으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하면 됩니다.

이 섹션에서 청년 성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계획했는지, 너무도 큰 불확실함에 부딪힐 때 **어떻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잠재력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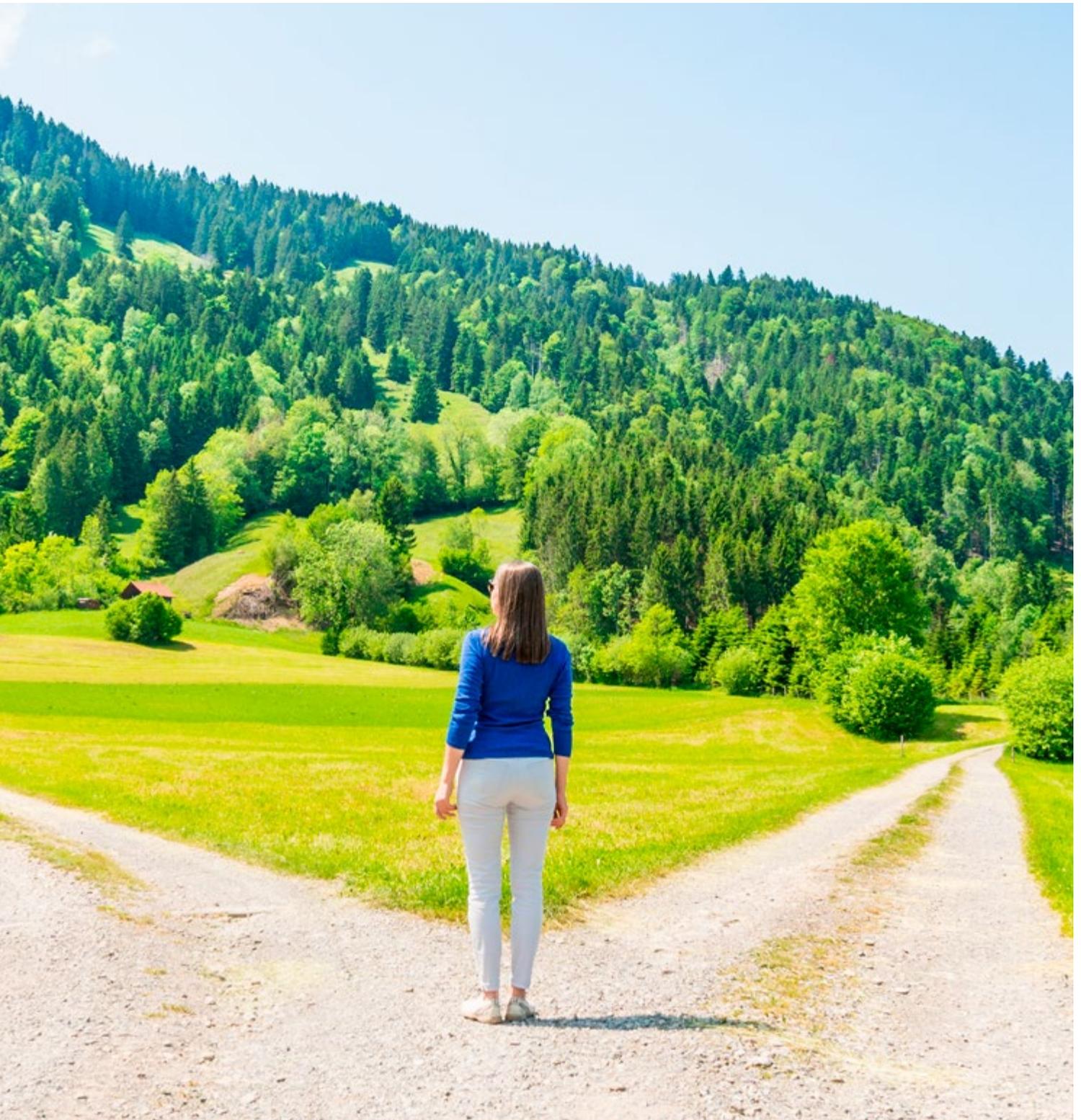
그리고 그 점이 우리의 미래를 빛나게 합니다.

멕 요스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교육을 받길 바라셨던 이유

글로리아 코르넬리오

여러분의
의로운 소망이
무엇이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나의 현재와 미래의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고 싶었다.

나의 조국 페루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굉장한 비용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기도 하다. 우리 가족은 내 교육비를 지원할 형편이 못 되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근면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한다면, 의로운 소망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기로 계획했다.

초중고 과정 동안 나는 매년 더 나아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페루의 최상위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장학금도 받았다. 대학 시절에 나는 한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하는 등 여러 조직에서 일하고 여러 유형의 프로젝트를 이끌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인턴십 동안, 내가 영어로 교육을 받는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브리검 영 대학교 - 아이다호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벅차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그저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맡은 몫을 하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BYU—Pathway
Worldwide를 통해
학사 학위를 받은
첫 번째 국제 학생이
되었다.

계획의 변화

나는 BYU—아이다호로 갈 예정이었지만, 지원서를 쓰는 동안 편입 전에 선교 사업을 먼저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페루 트루히요 지역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학위를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페루에 있는 대학교에 복학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것은 선교 사업으로 일 년 이상 학업을 중단한 것 때문에 내 장학금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학위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었다면, 왜 선교 사업을 가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부 회장님이 BYU—Pathway Worldwide에 대해 말씀하셨던 일이 생각났다. 회장님은 우리에게 귀환하면 영어 실력을 키우고 이 기회를 잡으라고 권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BYU—Pathway Worldwide와 함께한 나의 여정

회장님이 나에게 BYU—Pathway Worldwide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란 걸 알았다. Pathway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룹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매주 거의 세 시간씩 먼 거리를 오가야 했다. 희생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교육을 받는 일은 나와 주님께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희생은 많은 축복을 낳았다.

BYU—Pathway Worldwide는 내가 찾고 있던 기회의 창구였다. 그 프로그램 덕분에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일할 시간을 확보하고, 영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과정을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속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는 훌륭한 친구들도 만났다.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결국, 나는 BYU—Pathway Worldwide를 통해 학사 학위를 받은 첫 번째 국제 학생이 되었다. 교육은 내게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다. 이제 나는 교회 남미 북서 지역의 복지 및 자립 전문가이자 페루 BYU—Pathway의 자원 봉사 선교사다. 나는 모든 학생에게서 큰 빛을 본다. 나는 학창 시절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한다. 이런 여정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길을 걷는 모든 걸음마다 나와 함께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내 여정은 교육에 대한 나의 간증을 강화해 주었다. 나는 지금도 매일 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하고 배우겠다는 계획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발전하고, 시험받고, 성장하고, 우리의 순종을 증명하고, 구주께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이 지상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교육을 포함한 “만물은 영적이”다.(교리와 성약 29:34 참조) 지상에서 얻는 모든 경험과 지식은 우리가 더 구주와 같이 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세상에서 더 잘 봉사하고, 그분의 손에 들린 더 좋은 도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은 지식을 얻고, 행동하고, 진실과 의를 수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즉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안다. 특히 우리 마음의 소망이 발전에,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자녀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있을 때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지시하실 때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임을 안다.(니파이전서 3:7)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우리 각자는 모두 BYU—Pathway든 그 외의 다른 교육 기회든 자신의 길에 주님께서 놓아 두신 교육과 성장을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기쁘고 성실하게 일하며 그분의 인도를 신뢰할 때 위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그 기적을 경험했음을 안다. ■



글로리아 코르벨리는 페루 리마 출신이다. 그녀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배우는 것에 열정적이다. 그녀는 특별히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BYU—Pathway Worldwide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byupathway.org를 참고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청년 성인들이 교육을 받는 일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더 큰 희망의 열쇠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저는 온두라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온두라스는 기회가 가득하지만 삶의 방식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언제나 후대를 위한 더 좋은 기회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저의 형제와 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습시다. 저는 교육이 단지 대학 학위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며,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니파이후서 1:20 참조) 교육은 제가 우리 세대의 가장 강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창조하고 성장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기회를 줍니다.”

—사라 엠 발로우,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교육 덕분에 저는 인류 가족 안에서 제가 맡은 역할과 자리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케리아타 큐레네, 뉴질랜드 캔터베리

“교육을 받음으로써 저는 미래에 가질 직업을 통해 제가 세상의 빛이 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클라우디오 아쿠나 토마스, 칠레 안토파가스타

미래의 문제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로라 캠퍼너

머릿속을 맴도는 그 작은 목소리를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나는 스물여덟 살이었고, 미혼이었으며, 분만실 간호사라는 좋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직업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뚜렷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생이 총체적 난항을 겪고 있는 느낌이었다. 인생에서 내린 그간의 결정들에 의구심이 들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길을 잃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유독 기분이 가라앉아 있던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물음에 나는 지금껏 씨름해 온 감정들을 모조리 털어놓았다. 내 말을 들은 친구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구나, 근데 너 영적으로는 어떻게 지내니?”

“아, 그 부분은 완벽해.” 자동으로 이런 대답이 튀어나왔다.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거든.”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다른 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기

그 대화 후에 나는 다음의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첫째, 나는 내가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고, 계명에 따라 생활할 수 있으며, 또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음에 무척 감사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영적인 자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는 중이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내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단순한 일이다. 또한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항상 영을 동반하기 위해 건실하게 생활하며, 계명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려 노력할 때 내가 하늘과 좀 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사진: GETTY IMAGES

둘째, 내가 친구에게 한 대답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더 큰 신앙을 갖고, 지나친 걱정을 삼가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임을 더 신뢰해야 했다.

나는 인생에서 내 바람만큼 손조롭게 굴러가지 않는 면이 있을 때도,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행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 드리는 것임을 안다. 그리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땐, 그것이 내가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임을 알게 되었다.

스물아홉이 되어서 직장고 인생의 다음 장이 무엇이 될지 불안해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그분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며, 항상 나를 굶어살려 주실 것이다.(마태복음 6:28~34 참조) 칠십인 정원회의 엘 토드 버지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특히 역풍이 강하고 바다가 격동하는 우리 인생의 이 시기에,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바람을 불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변함없고 꺾이지 않는 신뢰”, 『리아호나』, 2019년 11월호, 48쪽)

걱정은 덜어 내고 더 깊이 신뢰하자

어떤 날은 인생이 마냥 버겁게만 느껴지지만, 생각을 좀 더 해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조금씩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걱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래와 관련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그분께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도 내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빛은 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신앙을 행사하고, 내가 맺은 성약을 지키며, 하늘 부모님의 딸이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일어나야 할 일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법으로 일어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



로라 캠페너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자리 잡은 스페인 가정에서 자랐다. 로라는 조산사로 일하고 항상 새로운 모험을 꾀한다.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문화에 매료되곤 한다.

“역풍이 강[한] ... 우리 인생의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바람을 불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 토드 버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요리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페이스트리와 컵케이크, 앙증맞은 쿠키도 만들고 고기와 밥이 들어간 요리까지 정말 무엇이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과를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반을 가르치라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정말 기쁩니다.

저는 답을 알고 싶은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그걸 찾기 위해 FSY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장학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업을 나가면 장학생 자격이 박탈됩니다. 만약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고 교사가 되면, 저는 일을 할 수 있고 학비도 낼 수 있게 됩니다. FSY에서 어떤 자매님은 자신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더 잘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FSY를 사랑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모두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례를 받은 후에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뜬해지곤 했지요. 하지만 워드 회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교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와 회원들이 저를 그리워하며 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그 이후로 계속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 곳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좋은 느낌을 받고,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드리아나 티 (맨 왼쪽), 17세, 도미니카 공화국

이번 호 이야기



54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

레오나르도 콘세이상

56 넓은 길이 아닌 협착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일

다카시 와다 장로

60 가정의 밤 실물 공과: 시간을 훌륭히 쓸 수 있는 비법

너태샤 앤더슨

62 우리들 공간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간증과 개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65 물문경에 나오는 사람들

엘마와 엠울레크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가 허용하기만 한다면, 복음이 변화시킬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레오나르도 콘세이상

선 교사들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무엇이 보이나요?” 나는 대답했다. “행복한 가족이요.”

“모든 가족이 다 이런 모습일까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저희** 가족을 보셨잖아요.”

나는 줄곧 브라질에서 살아온 16세 아이였다. 선교사들이 몇 주 동안 나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 중 함께 듣고 싶어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동안, 선교사들은 식구들이 서로 부딪히고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다. 그런 우리 가족과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가족은 그 어떤 공통점도 없었다.

한 장로가 말했다. “글쎄요, 아마도 형제님의 지금 가족은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이 꾸릴 미래의 가족은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은 방문을 마치면서 공부한 내용에 대해 기도해 보라며 다시 한 번 권했다. 늘 그랬듯이, 나는 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방문할 때면 좋은 느낌이 들었고, 복음도 이해가 잘 되었다. 그렇지만

혹시나 응답이 오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만일 복음이 참되다면, 나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었다.

새로운 선택

장로님들이 돌아간 후, 행복한 가족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우리 가족에게는 눈곱만큼도 비슷한 구석이 없었다. 나는 평생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와는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할머니가 우리를 돌보아 주셨지만, 우리 중 누구도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었던 가족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이제껏 나는 언젠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부모님과과는 전혀 다른 부모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선교사들과 토론을 하면서, 나는 부모님이 내 나이 때 하셨던 행동을 정작 나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내키는 대로 행동했으며, 반항아처럼 살았다. 무의식적으로 부모님과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였다. 마침내 기도를 드리자 그동안 내내



가족의 상황이 어떠하든,
복음은 우리의 가족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준다.



예상했던 응답이 왔다. 이 교회는 참되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였다.

새로워진 나

침례를 받기 전에 나는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할머니는 반대하셨지만 나는 굽히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할머니, 어느 레오나르도가 더 좋으세요?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늦게 들어오는 레오나르도요? 아니면 지금의 저요? 제가 이렇게 변한 건 복음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결국 허락해 주신 덕분에 나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때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그 변화를 제대로 알아차린 건 몇 년 후의 일이다.

새로워진 가족

내가 브라질 남부로 선교 사업을 떠나기 직전에 할머니는 나와 함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셨다. 모임을 마친 후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간증 모임을 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레오나르도가 여러분의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모두 더 가까워진 이런저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우리가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전과는 달리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싸움과 논쟁이 멈추고, 서로 진정한 애정이 생겼다는 것, 먹을 것이 더 풍족해지고 다른 면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다.

나도 그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 시기가 내가 침례받은 때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 교회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레오나르도의 선택 덕분에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해

정말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께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를 말씀하셨을 때, 선교사들이 몇 년 전에 보여 준 그 사진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때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내 미래의 가족 안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 지금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생에서는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안다. 가족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가족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준다. ■

글쓴이는 현재 미국 유타주에 산다.

넓은 길이 아닌 협착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일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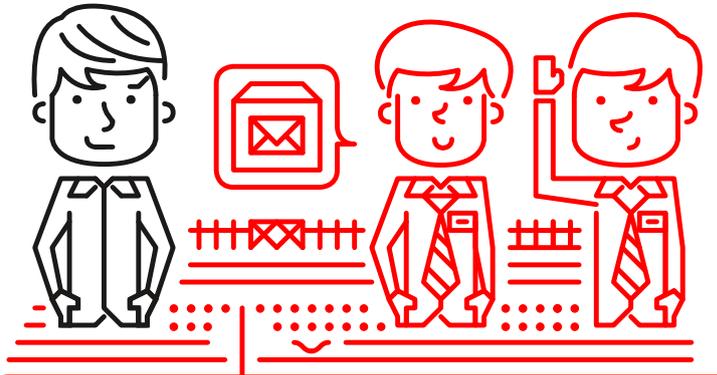
다카시 와다 장로
철십인 정원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일본 나고야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우 종교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불교식 제단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게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가족의 생활 방식 자체였습니다. 제게는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편이 더 쉬웠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고 인기 많은 길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님을 제게 여러 차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교과서인가, 성스러운 책인가

십 대 때 저는 정체성에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열세 살 때쯤,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영어와 일어가 나란히 적힌 성경책을 전교생에게 한 권씩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으니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사용하세요.” 하지만 막상 책을 펴 보니, 거기에는 외로울 때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때,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참고하면 좋을 성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태복음 16:24)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성구들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분을 구주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교과서여야 할 이 책에 이처럼 마음이 끌리는 학생이 저 하나뿐인지도 궁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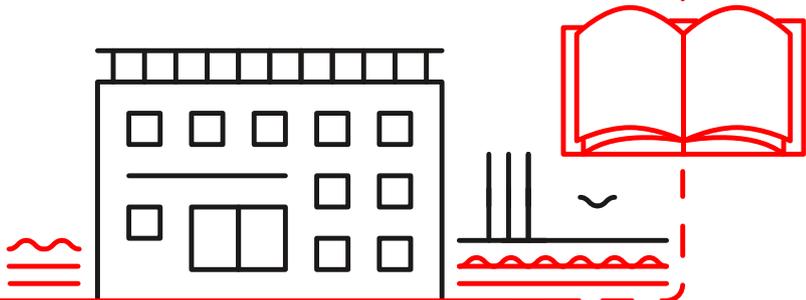


도망갈까, 계속 들어 볼까?

몇 년 뒤에 저는 처음으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포교하며 돌아다니는 기독교인 청년들을 조심하라며 제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키가 큰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친절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아마 뒤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가 물어본 건 우체국에 가는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길을 알려 주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 꼭 말을 걸어 볼 거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다른 선교사들과 마주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에 대한 기록을 읽어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처럼 어린 소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신약전서에서 읽어 봤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혁신적이면서도 옳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대신 더 배우기 위해 선교사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변명할까, 진리를 찾아볼까?

우리가 만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제게 침례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따르는 전통을 떠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처럼 기도해야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이 참된 것인지 여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서 그 지식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았고, 그 무엇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어릴 시절에 질문이 많았던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분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제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제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와 제가 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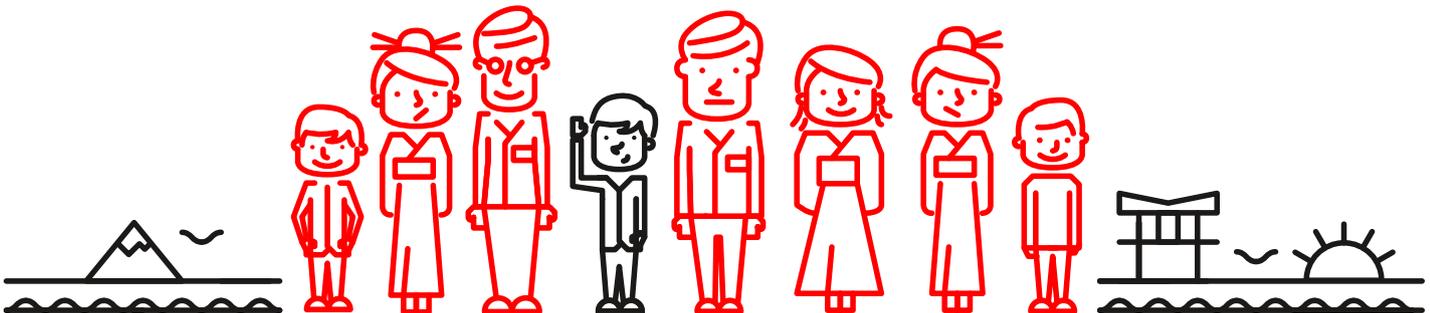
주변에 섞여 들까, 두드러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사람과 무난히 섞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남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배우고 나자, 저도 두드러져 보이거나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으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부모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분은 제가 반항하는 것이며, 침례를 받겠다고 결정하기에는 제가 아직

너무 미숙한 존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이 부모의 전통을 버리고 이 낯선 종교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었으며 부모님도 제 종교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그분들의 걱정을 무시할 것인가

저는 자매 선교사님들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은 부모님이 이 종교를 더 좋게 느끼실 수 있도록 자신들이 두 분을 만나 대화해 보면 어떻겠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별로 원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자매 선교사 한 분이 함께 금식을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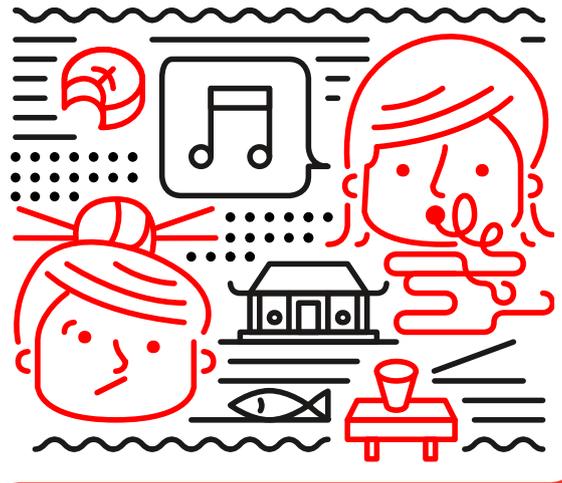
제가 아침을 거르자, 어머니는 걱정하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밥을 먹지 않니?” 금식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더욱더 걱정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종교에 빠지더니, 이젠 밥까지 먹지 않는구나. 정말 걱정이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내가 그 선교사들에게 전화해 봐야겠다.”

어머니는 **정말로** 자매 선교사님들에게 전화하셨고, 어찌 된 영문인지 선교사님들은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부모님에게 찬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를(『찬송가』 187장) 가르쳐 드렸고, 우리는 다 같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부모님 두 분 모두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더는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모든 가르침이 복음 안에 들어 있었기에, 저는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을 오래도록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분들도 언젠가 복음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침례받은 후로 장장 35년이 걸렸지만, 어머니는 결국 침례를 받으셨고, 불과 몇 년 전에는 성전 엔다우먼트도 받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은 제 인생의 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영을 따르고, 설사 어려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언제나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



시간을 훌륭히 쓸 수 있는 비법

주님을 최우선에 두면
나머지를 위한 여유가 생긴다.

너태샤 앤더슨
교회 잡지

준비물

- 투명한 유리병
- 모래, 자갈, 쌀, 또는 조약돌
- 큰 돌 여러 개(골프공 크기,
혹은 너비 5cm 정도가 적당하다.)

준비 방법: 재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양을 잰다. 먼저 유리병에 큰 돌들을 넣는다. 그런 다음, 거기에다 유리병을 가득 채울 만큼 모래를 넣는다.(자갈이나 쌀, 조약돌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 유리병을 흔들어 보고 싶을 것이다. 공과를 가르치기 전에 큰 돌들과 모래를 각각 다른 그릇에 담아 둔다.

여러분이 매일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 좋은 일들을 다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 우리는 더 좋은 것 또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¹

이 식물 공과는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우선순위에 둘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여 줄 것이다.

1. 시간을 채운다

우리의 시간을 쓰기에 좋은 활동들은 많다. 가족들에게 매일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몇 가지 예시를 말해 달라고 한다.

유리병은 시간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큰 돌과 모래는 시간을 들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나타낸다. 즉, 큰 돌은 경전 공부와 봉사,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교회 참석 등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시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반면, 모래는 숙제나 친구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 등 다른 좋은 활동을 상징한다.



삽화: 데이비드 하빈

2. 우선순위를 뒤섞는다

먼저 유리병에 모래를 전부 부은 다음, 큰 돌들을 그 위에 올린다. 모래를 먼저 넣게 되면 큰 돌들을 넣을 충분한 공간이 없어진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보다 다른 활동들을 우선시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모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3. 제자리를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명하셨다.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하라.”(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3 [경전 안내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시간 사용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을지 토론한다.

유리병을 비운 다음,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다시 해 본다. 이 부분에서 어린 동생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에게 큰 돌들을 유리병 안에 넣어 달라고 한다. 그런 다음, 유리병이 다

찰 때까지 모래를 부으면서 큰 돌들 주위에 있는 여분의 공간에 모래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살펴본다.

러셀 엠 벨슨 회장의 다음 약속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가족들에게 물어본다. “계속해서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후하게 드린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을 더 유용하고 의미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²

주님을 최우선에 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려 노력할 때, 그분은 우리가 삶에 필요하며 마음을 고양하는 다른 일들을 할 충분한 시간이 생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숙제를 끝내거나, 재능을 기르거나, 필요한 만큼 수면을 취할 시간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시간 사용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분께 여쭙 보자. 가족들 모두 매일 주님의 사업을, 그리고 그분과 자신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4, 107쪽, 번역 수정.
2. 러셀 엠 벨슨,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뚝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6년 10월호, 51쪽.



계속되는 영의 속삭임

훗날엔 날리는 케냐의 길거리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동반자와 나는 한 여성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우리가 준 소책자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다.

며칠 후, 똑같은 그 거리를 걷던 중 우리는 그 여성을 다시 찾아가 보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반문했다.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도 들었는데 왜지?’ 하지만 우리는 그 속삭임에 순종했다.

우리가 다시 찾아가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도 이내 다시 만나 반갑다고 말했다. 우리는 복음 토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금세 논쟁으로 변해 버렸다. 동반자와 나는 기도로 토론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곧바로 다시는 그녀를 찾아가지 말자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우리는 또다시 그녀를 찾아가라는 강한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동반자는 우리가 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자만심을 꼭 누르고 동반자와 함께 다시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얼굴빛도 변했고, 게다가 우리의 메시지를 기꺼이 듣고자 했다. 다음번에 찾아가했을 때, 그녀가 먼저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4주 후에 그녀는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확인을 받은 후, 그녀는 우리를 꼭 안아 주고는 다시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며, 성신을 통해 그들을 찾는 일에 우리 모두를 활용하신다. ■

레이하 엠,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

나는 영의 속삭임을 어떻게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1. 인도를 받으려 기도한다.
주님께서는 성신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앨마서 37:37 참조)
2. 마음을 겸손히 한다.
온유함은 영을 초대한다. (모로나이서 8:26 참조)
3. 망설이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이 속삭임에 따라 실천하는 일을 미루거나 그것을 무시하도록 유혹한다. (모사이아서 3:19 참조)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4. 즉시 행한다.
영의 속삭임에 언제든지 즉시 응하겠다고 결심한다.(토마스 에스 몬슨,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73~75쪽 참조)

규칙을 두는 이유

청소년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던 나는 곧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것 등 말이다. 마치 어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친구도 여럿 사귀고 봉사 활동도 하고 복음에 대해 배우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소년 대회 마지막 날 열린 간증 모임에서, 지도자 한 분이 스테이크의 청소년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셨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를 사랑한다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제한을 두는 거지?’** 그 순간, 형제님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다.

그분은 지도자들이 규칙을 정하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영에 감동되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했다. 계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안전히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주어졌다.(교리와 성약 82:2~9 참조)

성신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 내가 이것의 참됨을 알도록 도와주셨다. ■
세르주 피, 프랑스 일드프랑스



언제쯤 교회에 가입할 수 있을까?

내가 다섯 살 때쯤 아버지는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셨다. 그 일은 특히 내가 여덟 살이 됐을 때 나를 정말 힘들게 했다. 침례받는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던 나에게 아버지는 침례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정말 복음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인지 확실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침례받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다.

교회가 참되다면 나는 왜 침례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던 기억이 난다. 십 대가 되고 나서, 나는 성전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다. 다른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다. 거기 까지 못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언젠가 내게도 기회가 오리라는 것은 늘 알고 있었다!

2019년 5월, 나는 열여섯 살에 마침내 침례를 받았다. 복음이 주는 순수한 기쁨을 느끼고 간증을 얻었던 경험들이 떠올랐다. 침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으며, 그날이 오기까지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통해 나는 복음이 참되고, 늘 그러했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알았다. ■

트리니티 시, 미국 콜로라도주



간증과 개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간 증과 개심 사이의 이 상관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행한 선교 사업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계시와 예언의 영을 좇아, 또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좇아, 가르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들은—참으로 … 주께서 사심같이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주께로 돌이킨 레이맨인들은 모두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이니, 그들은 그들의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려서 … 싸우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들은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니.”(앨마서 23:6~8)

이 구절들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요소는 (1) 간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 그리고 (2) 제가 이해하기에는 구주와 그분의 복음으로 개심하는 것인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간증과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강력하게 합쳐져 굳건함과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겼고, 영적인 보호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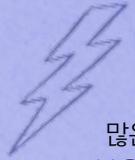
간증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얻는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지속적인 개심은 우리가 받은 계시된 진리에 대해 한결같이 헌신하는 것인데, 기꺼운 마음과 의로운 이유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됨을 아는 것은 간증의 본질입니다. 꾸준하게 복음에 충실히 생활하는 것은 개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심과 교만, 불순종과 같이 마음속에 뿌리내린 “반역의 무기”를 치우려면 단순히 믿고 아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반역의 무기를 버리려면 확신과 겸손, 회개, 유순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 방해가 되는 반역의 무기가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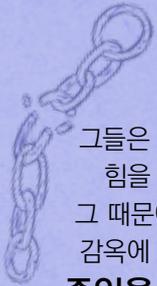
저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

2012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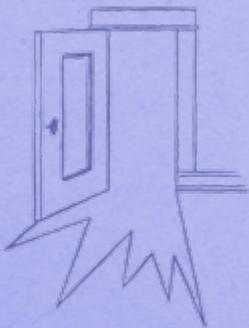
엘마 와 엠울레크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역량 있는 선교사
동반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힘을 받았다.
그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
없었다**



엠울레크는
자기 집에
**선지자(엘마)를
영접하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후 개심했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씨앗을
심고 가꾸어
키우는 일에 비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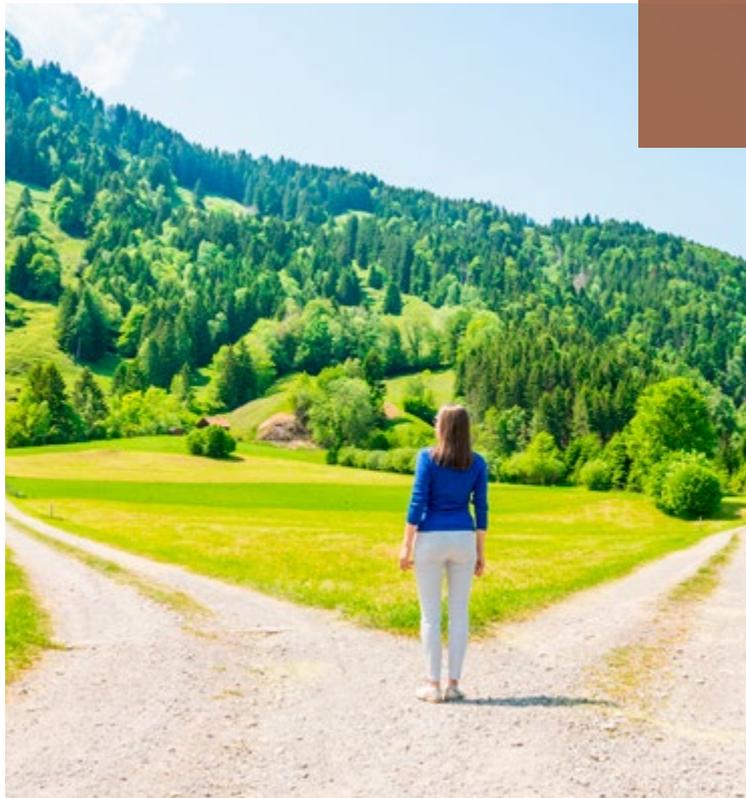


엘마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후
개심했다.

미래가 걱정되는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한
청년 성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들이 한 일을 이야기한다.

44



청소년

우리 가족은 화목하지
않았다, 내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54

실물 공과

돌맹이와
우선순위

60

부모

자녀가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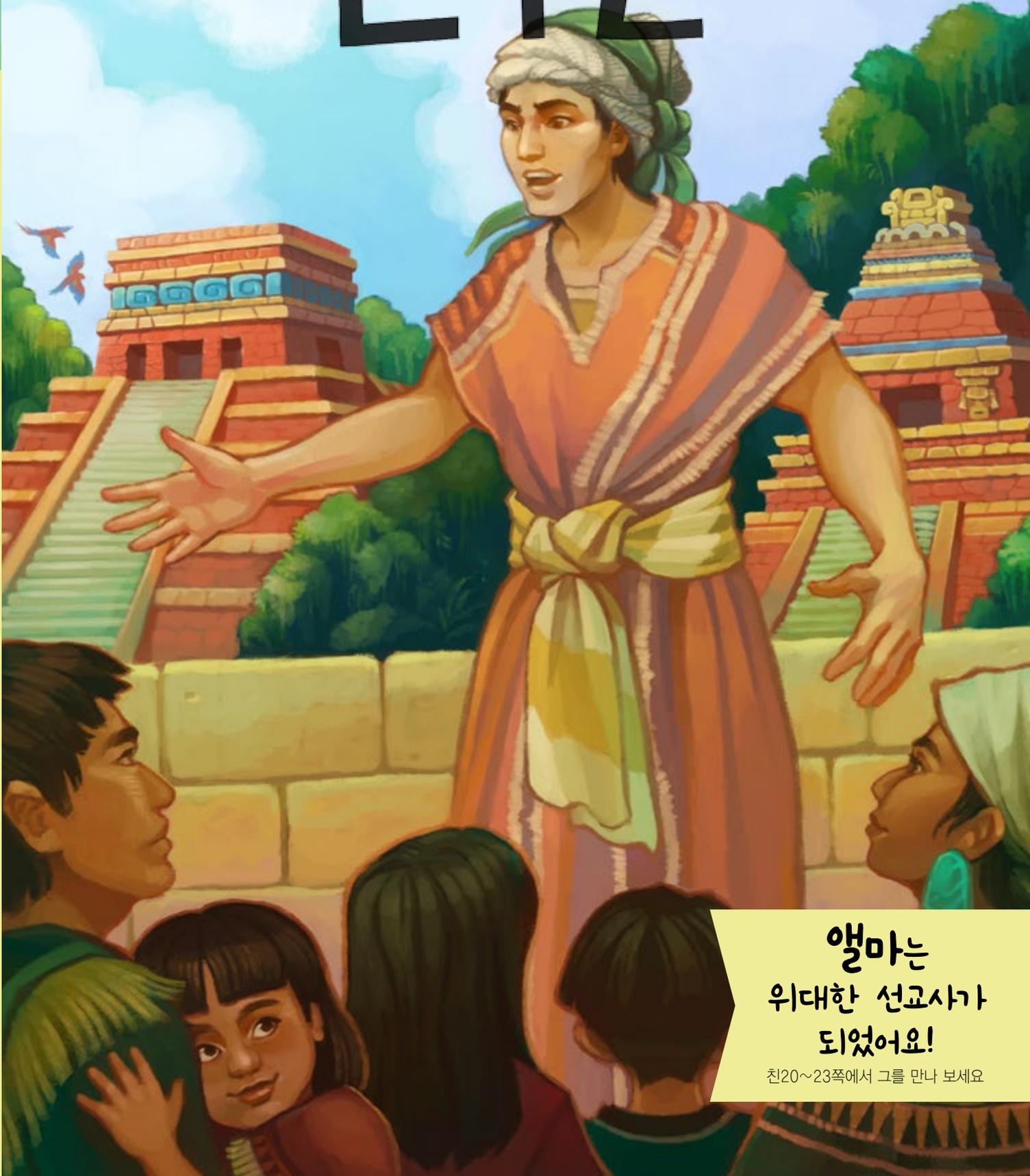
친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친구들

『리아호나』 어린이 섹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앨마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친20~23쪽에서 그를 만나 보세요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개척자들을 따르십시오



언젠가 저는 교회의 초기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밸리로 가며 걸었던 길을 따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걸었던 길을 걸으면서 저는 마음이 매우 겸허해졌습니다. 그러나 개척자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척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척자들은 신앙을 갖고 새로운 종교,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의 방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개척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개척자들은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랐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개척자들은 시온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도 단합해야 합니다.

개척자들은 그 누구도 버려 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정 중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척자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그들을 기릴 수 있습니다. ●

“개척자들을 따름”, 『리아호나』, 1998년 1월호, 72~74쪽에서 가져옴.

나도 개척자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우려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개척자예요.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보세요.
길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개척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출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요.

우리
가족이
훌륭한 전통을
시작하도록
도와요.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요.

도착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릴라의 선택

릴라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카롤리나 마린
(실화에 근거함)

“이 몸은 주가 주신 거룩한 성전.”(《어린이 노래책》, 73쪽)

“경전 읽을 시간이야!” 릴라가 말했어요.

릴라는 여동생인 아니카와 막내 남동생 스페탄에게 경전을 읽어 주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릴라는 곧 침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릴라는 침례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경전을 읽고 싶었어요.

릴라는 경전 이야기 책의 첫 장을 폈어요. 아니카와 스페탄은 그림을 잘 볼 수 있도록 릴라 곁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나중에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야 해.” 릴라는 동생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는 첫 번째 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릴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이었습니다.”

릴라와 아니카와 스페탄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림을 보았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야. 준비됐니?” 릴라는 고개를 돌려 아니카를 쳐다보았어요. “너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왔지?”

아니카가 손뼉을 쳤어요. “하늘!”

“맞았어.” 릴라가 말했어요. “그러면 스페탄은 어디에서 왔을까? “스페탄도 하늘에서 왔어.” 아니카가 말했어요. 스페탄은 킥킥 웃으면서 자기 주먹을 입 안에 넣었어요. 릴라와 아니카도 깔깔 웃음을 터트렸어요. 스페탄은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귀여운 한 살배기 아기일 거예요!

“우리 가족은 모두 하늘에서 왔어.” 릴라가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 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예수님 그림을 가리켰어요.

책을 다 읽은 후, 릴라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릴라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릴라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아침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때였어요. 릴라의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릴라는 루이스 부인이 접시에 담아 주시는 엠파나다를 보자 그게 어떤 맛일지 상상이 되었어요. [엠파나다: 중남미의 스페인식 파이 요리—옴긴이] 정말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났어요!

루이스 부인은 릴라에게 우유를 한 잔 따라 주셨어요. ‘어머!’



릴라는 생각했어요. 우유의 색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거든요. 가끔 릴라의 학교에서는 음료에 커피나 차를 타 줄 때가 있었어요.

릴라는 루이스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우유에 커피나 차가 들어 있나요?”

루이스 부인은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커피만 아주 조금 들어갔지.” 루이스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맛도 안 날 거야.”

릴라는 잠시 생각을 해 보았어요. 릴라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릴라는 선지자께서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감사하지만, 오늘은 우유를 마시지 않을래요.” 릴라는 싱긋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 릴라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날 저녁, 릴라는 아빠가 주방에서 설거지하시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릴라는 아직도 그 경전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유에 대한 생각도 했고요.

“아빠?”

“응?”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우리가 몸을 갖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빠는 접시를 행구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

아빠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네 몸은 네 영혼이 사는 집이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지.”

릴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릴라는 종종 초등학교에서 그런 내용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몸을 잘 돌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

“오늘 학교에서 커피를 탄 우유가 나왔어요.” 릴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그 우유를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제 성전을 잘 보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구나, 우리 딸.”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고 릴라를 안아 주셨어요.

릴라도 아빠를 꼭 껴안았어요. 릴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신의 몸을 잘 돌볼 수 있었다는 게 무척 기뻐했어요. ●

글쓴이는 아르헨티나 코리엔테스에 산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가족은 아르헨티나에 살아요. 아르헨티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기사를 읽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고와 파올로예요.

우리 함께 아르헨티나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르헨티나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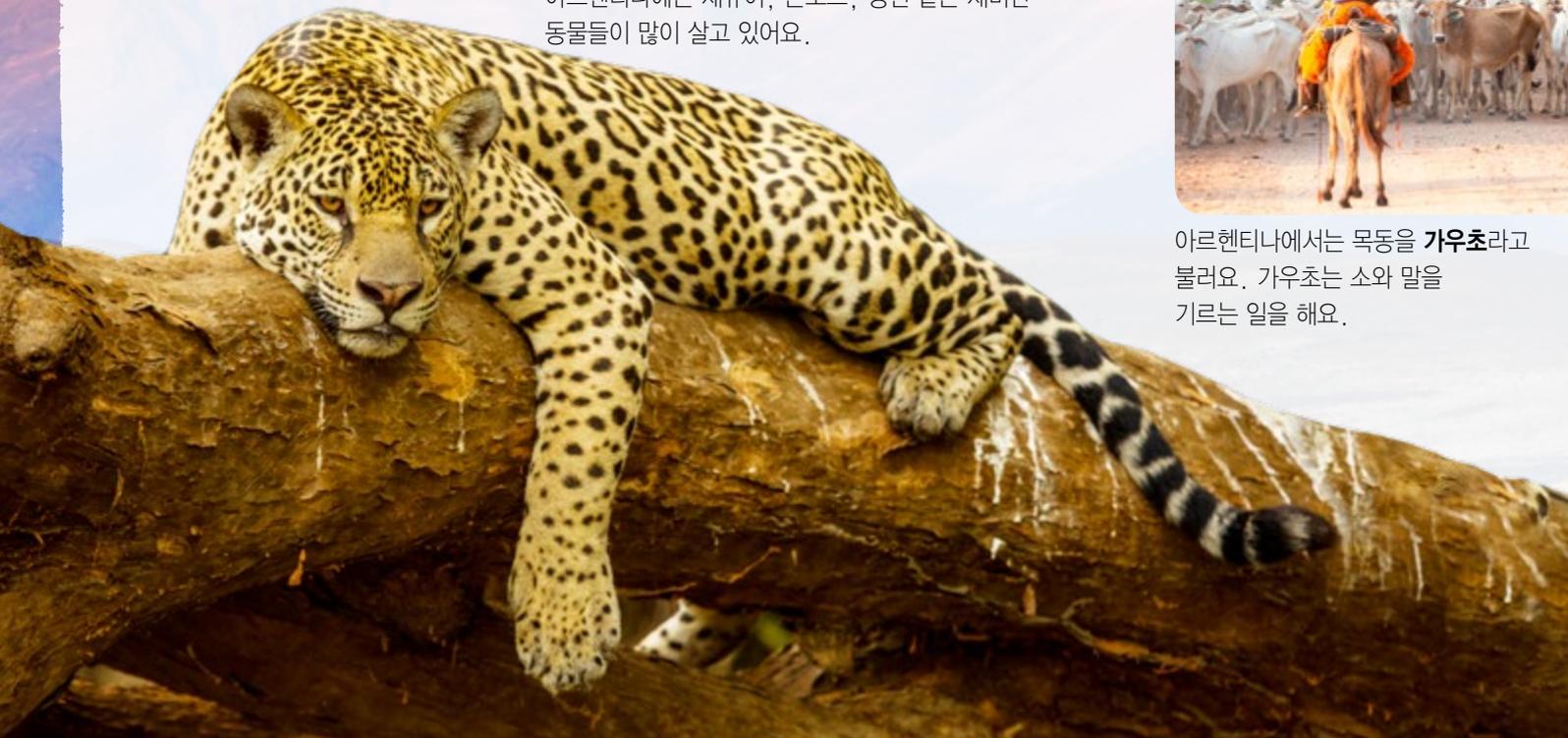
아르헨티나에서는 **엠파나다**를 즐겨 먹어요. 그건 빵 안에 소고기나 옥수수 혹은 과일을 넣은 빵이에요. 정말 꿀맛이죠!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아르헨티나의 국토는 길이가 3,219km가 넘어요. 아르헨티나의 북쪽 지역은 여름에 엄청나게 덥지만, 남쪽에서는 1년 내내 퐁퐁 언 빙하를 볼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에는 재규어, 콘도르, 펭귄 같은 재미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목동을 **가우초**라고 불러요. 가우초는 소와 말을 기르는 일을 해요.



많은 사람이 야외
시장에서 음식을 사요.
이 아이는 아빠를
도와서 산디아를 들고
있어요. 산디아는
수박을 뜻해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보세요!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목표 프로그램을 소개하셨을 때, 저는 달리기를 하고 좋은 친구가 되고 더 훌륭한 방법으로 기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또,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안다고 성찬식에서 간증도 했어요.

**곤살로 엘, 7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전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배워요. 그런 걸 배울 때, 저는 더 행복해져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엠마 엘, 5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우수아이아는 전 세계에서 남극과 가장 가까운 도시 중 하나예요! 그 도시에는 세 개의 와드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아르헨티나를
탐험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이 여자아이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성전이 헌납되던 날 성전에 갔어요.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성전은 세 곳이 될 거예요!





새미의 자그마한 빵 수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나라.]”(모사이야서 2:17)

새미는 눈을 뜨고 하품을 했어요.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음, 아빠가 빵을 굽고 계시나 봐! 새미는
생각했어요.

아빠는 매주 토요일이면 가족들을 위해 빵을
구우셨어요. 갈색으로 바삭하게 구워진 빵을
오븐에서 꺼내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게
새미는 정말 좋았어요. 아빠는 빵을 썰면 항상
새미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
아닌데? 왜 빵을 굽고 계시는 거지?**

새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새미는 아빠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여쭙었어요.

“감독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기억하니?” 아빠가 물어보셨어요.

새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틴 자매님 가방을 위층까지
들어다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멋지네, 우리 아들. 아빠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해 보았어. 그러다
빵을 구워서 나눠 드리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새미는 오븐 안을 들여다보며 빵을 세어
보았어요.

“하나 ... 둘 ... 셋 ... 넷. 빵을 누구에게 나눠
주실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틴 자매님께 하나
드리고, 두 개는 밀러네 집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번째 빵은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

새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리 아저씨는 어때요?” 새미가 말했어요. 리
아저씨는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사는 분이예요.
리 아저씨는 밖에 잘 나오지 않고, 거의 늘 창
밖으로 사람들을 내다보며 지내시죠.

“좋은 생각인걸!” 아빠가 맞장구를 치셨어요.

빵이 다 구워지자 새미는 아빠를 도와
빵을 포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미는 자기의
손수레를 가져왔어요. 아빠와 새미는 빵을
수레에 실었어요.

“자, 이제 빵 수레가 나갑니다!” 새미가
외쳤어요.

아빠는 새미가 손수레 끄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이웃에게 나눠 줄 따끈한
빵들처럼 새미의 가슴속에도 따뜻하고 좋은
기분이 스며들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버몬트주에 산다.



출처: 조시 힐

서로 달라도 함께할 수 있어요

베서니 바살러뮤
실화에 근거함



“그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다.(신앙개조 제11조)

엘 리네 가족은 먼 곳에 있는 외삼촌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엘리는 정말 신이 났어요! 아주아주 오랜만에 사촌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출발하기 전날, 엄마 아빠는 의논할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모이면 식사 시간에는 항상 기도를 하고, 때로는 교회 이야기도 하지?”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엘리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이제 교회에 가지 않으시거든. 그리고 두 분은 그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엘리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요?”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 하지만 외삼촌과 외숙모는 우리를 많이 사랑한다. 아빠 생각에는 우리랑 말다툼을 하거나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부탁하더구나.”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경전을 읽거나 기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렇게 할 거야.”



“밥 먹을 때는 어떡해요?” 엘리의 언니가 물었어요.
 “그건 가서 상황을 한 번 보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식사 전에 외삼촌과 외숙모가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돼.”
 “알겠어요.” 엘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이튿날, 엘리의 가족은 차를 타고 늦은 밤까지 온종일을 달렸어요. 마침내 외삼촌댁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과 외숙모가 차에서 짐 내리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엘리는 아침을 먹으러 부엌에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친척들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조금 긴장이

되었거든요. 그때, 외숙모가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엘리 옆에 앉으셨어요.

“나중에 우리 딸이 하는 미용실에 갈 건데, 같이 갈래?”

“미용실요?” 엘리가 말했어요.

“그래! 원하면 너랑 언니랑 머리도 할 수 있어.”

엘리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미용실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엘리는 사촌 언니가 일하는 걸 보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사촌 언니의 손가락이 머리를 빗고 땅으며 앞뒤로 날아다녔어요. 모든 손님의 머리 손질이 끝나자, 엘리는 언니들과 함께 미용실 거울 앞에서 패션쇼 놀이를 했어요. 모두들 처음 해 보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깔깔깔 웃어 댔어요.

다음 날은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모두 함께 집 안에서 보드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엘리는 사촌이랑 편을 먹고 오빠 두 명을 상대하기로 했어요. 모두들 엮치락뒤치락 보드게임 말을 옮기면서 서로 놀리기도 했지요.

“우리가 이겼어!” 엘리가 보드게임 판 끝으로 말을 옮기면서 외쳤어요. 게임이 끝나자 다들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게임에 져서 심술이 난 척했던 오빠들도 함께요.

겨우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엘리가 차 뒷좌석에 올라타는데, 친척들이 외치는 작별 인사 소리가 들렸어요.

“보고 싶을 거야!”

“빨리 다시 와!”

“진짜 진짜 사랑해!”

떠나는 차 안에서 엘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믿음이 다르다고 해도 모두가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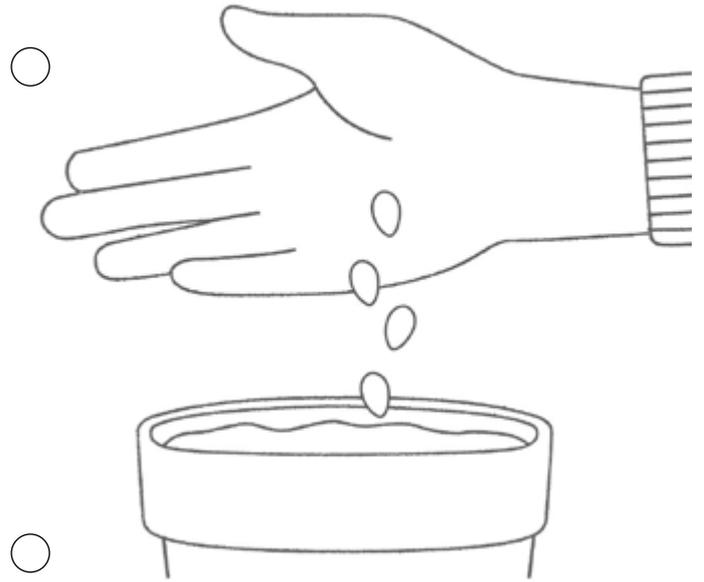
글쓴이는 미국 조지아주에 산다.

이 종이들을 잘라 낸 뒤, 풀칠을 하거나 스테이플러,
또는 끈으로 연결해서 책을 만들어 보세요!

쑥쑥 자라나는 나의 신앙

이름: _____

1



물문경에서 엘마는 신앙이
씨앗과 같다고 말했어요.

4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예수님을 믿는 제 신앙이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5



나무가 자라면 우리에게 달콤한
과일을 선물해 줘요.

2



저는 선지자와 경전의 가르침에 귀 기울임으로써 신앙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3



씨앗이 자라려면 물과 햇빛이 필요해요.

6



제 신앙도 점점 자라나면서 제 삶에 달콤한 축복을 가져다줄 거예요.

7



저는 제 신앙이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계속 보살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사랑하세요!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자매님의 비밀 재료



하 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한 자매님은 훌륭한 봉사의 모범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시간마다 안토니에티 자매님은 항상 초콜릿케이크를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초콜릿케이크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자매님의 케이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입만 먹어 보지 그러니? 이 케이크는 나만의 비밀 재료로 만들었거든.”

저는 자매님의 말씀대로 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어머니를 통해 안토니에티 자매님의

비밀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토니에티 자매님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에 갈지, 아니면 그 돈으로 초등학교 반을 위해 초콜릿케이크 재료를 살지 매주 선택하셔야 했지. 자매님은 항상 초콜릿케이크를 선택하셨어. 그래서 버스를 포기하고, 날이 좋으나 흐리나 3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니셨단다.”

안토니에티 자매님의 비밀 재료는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

“이타적인 봉사가 주는 기쁨”,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55~57쪽에서 각색함.





삽화: 이지 밀러

나는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앨마서 37:6 참조)

깜짝 놀랄 선교사 부름



루시 스티븐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공 항 밖으로 걸어 나온 에드윈
다마라주는 눈이 부시게 쏟아지는
햇볕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길가에 줄지어
선 야자나무들이 보이고, 근처 시장에서
풍겨오는 다양한 향내가 코끝을 간질였어요.
에드윈과 그의 아내 엘시가 인도로 돌아온 거예요!
사모아에 살던 두 사람은 지금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었어요. 에드윈과 엘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왔어요. 에드윈은 조금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시리라는 걸 알았어요. 두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에드윈과 엘시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에드윈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에드윈은 교회에 딱 한
번 가 보았어요. 물문경도 읽어 보았지요. 하지만 공부를 마치고
인도로 돌아온 후로는 교회를 아예 잊고 살았어요.

몇 년 후, 어느 날 에드윈과 엘시는 사모아로 이주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곤충학자였던 에드윈은 사모아 섬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일을 맡았어요. 두 사람은 사모아에서 선교사를
만났어요. 물문경을 다시 읽었을 때, 에드윈은 마음속에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엘시도 물문경을 읽었어요. 에드윈과

엘시는 자녀들과 함께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교회에 가입한 후, 에드윈의 가장 큰
소망은 인도에 있는 가족들도 복음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인도에는 에드윈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에드윈과 엘시는 교회 본부통
편지를 써서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이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하도록 **에드윈과
엘시에게** 부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에드윈과 엘시는 인도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에드윈의 형을 만나러 갔어요. 에드윈의
부모님과 형, 누나, 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에드윈과
엘시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에드윈의
가족은 복음에 대해 배우고는 행복해했어요.

몇 주 뒤, 에드윈과 그의 가족은 형네 집 마당에 있는 수영장
주위로 모두 모여 섰어요. 수영장은 말끔히 청소하고 새로
페인트칠도 한 뒤 깨끗한 물을 채워 둔 상태였어요. 가족들은
모두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며
아래로 떨어지는 사리를 입었어요.[사리: 인도 여성들이 입는 전통
의상—웁긴이 남자들은 인도풍의 헐렁한 겉옷과 바지를 입었어요.

에드윈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 물속에 섰어요. 에드윈은 이렇게 말했어요. “새뮤얼 데이비드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에드윈은 아버지에게 침례를 주면서 큰 기쁨에 휩싸였어요. 그다음에 어머니에게 침례를 줄 때는 기쁨이 더 커졌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에드윈이 침례를 준 사람은 무려 18명이나 되었어요!

다음날, 에드윈과 엘시는 기차를 타고 여섯 시간을 달려갔어요. 두 사람은 다른 가족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에드윈은 근처 강가에서 친척 네 명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에드윈과 엘시는 1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엘시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엘시의 아버지는 다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엘시의 아버지는 침례는 받지 않으셨지만, 물몬경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물몬경을 인도에서 쓰는 언어 중 하나인 텔루구어로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에드윈과 엘시가 선교 사업을 마쳤을 때, 인도에는 첫 번째 교회 지부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회원이 있었어요! 사모아로 돌아가는 에드윈과 엘시의 마음은 무척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을 선교사로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감사를 느꼈어요. ●



에드윈과 엘시 다마라주 부부는 1978년에 인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어요. 지금 인도에는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수출: 메니콘스

전 정말 나쁜 일은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회개해야 하나요?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궁금이가

궁금이에게,

회개는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에요. 사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회개는 단순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가 어땠는지 말씀드리고, 내일 어떻게 더 잘하고 싶은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언가를 잘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어떤 사람은 회개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회개는 행복한 일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넬슨 회장님은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궁금이라도 삶에서 더 많은 평안과 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랑으로,
 친구들

한 번 해 보세요!

이 활동에서 숟가락이 후추를 가져가는 것처럼, 회개는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크고 작은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모두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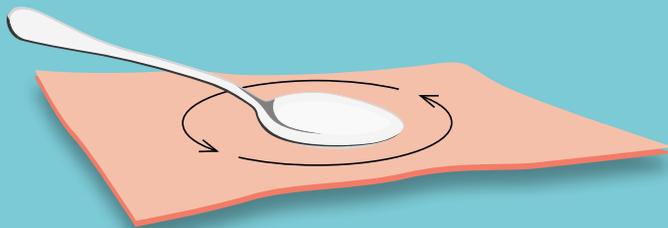
- 소금
- 후추
- 플라스틱 숟가락
- 수건

1. 접시에 소금을 조금 붓습니다. 이걸 죄를 짓기 전까지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였던 것을 나타냅니다.

2. 소금 위에 후추를 조금 뿌립니다. 이건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을 나타냅니다.

3. 이제 플라스틱 숟가락을 수건에 문질러 보세요.

4. 숟가락을 천천히 소금과 후추 위에서 움직여 보세요. 숟가락에 후추가 달라붙을 거예요!



작고 단순한 퍼즐

리아호나가 리하이의 가족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단순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엘마서 37:6, 38~44 참조)

아래에 나오는 퍼즐 조각들을 퍼즐 안에서 찾아낼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작고 단순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개한 엘마 이세

헤일리 앤시
교회 잡지



엘마는 선지자의 아들이었어요. 엘마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엘마는 아버지의 가르침은 믿지 않았어요.

엘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참되지 않다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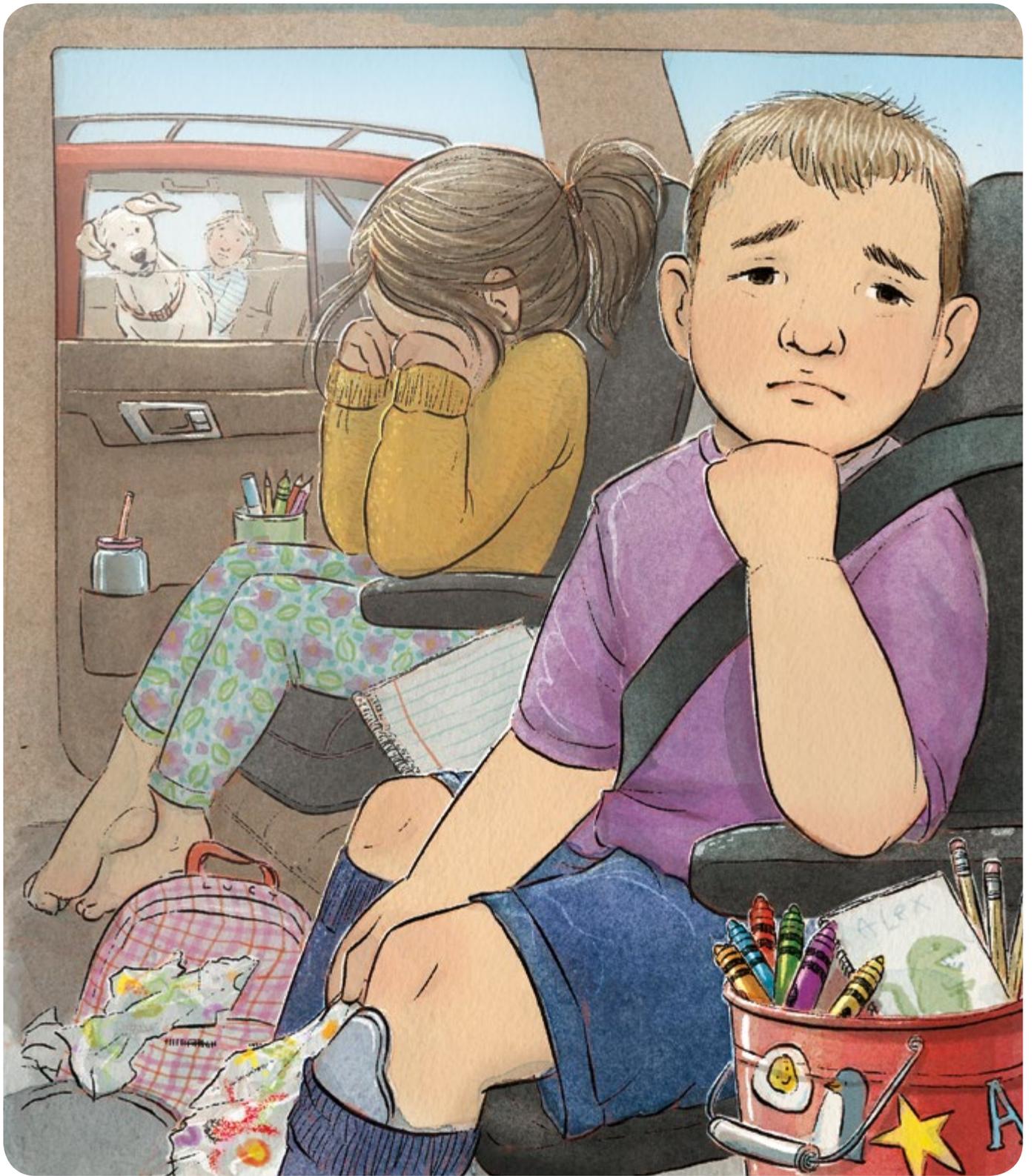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한 천사가 엘마에게 나타났어요.
천사는 엘마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3일 동안, 엘마는 잠을 자듯 누워만 있었어요. 사실 그때 엘마는 자신이 했던 나쁜 선택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엘마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용서를 받았어요! 엘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어요. 엘마는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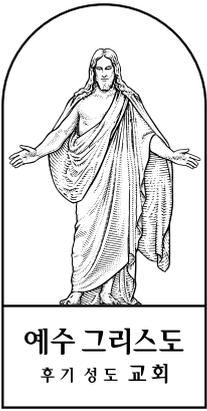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실 거예요. ●

이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27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것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친10쪽 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고, 다음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엘리의 가족은 어떻게 사랑을 보였나?

엘리의 가족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는가?

우리 가족은 다른 이들과 의견이 엇갈릴 때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나누십시오,

친구들

자녀의 예술 작품이나 경험을 『리아호나』에 보내고 싶습니까?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또는 자녀의 이름과 나이, 거주 지역, 그리고 “나 [부모의 이름]는 내 자녀가 제출한 자료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교회 잡지, 교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기타 교회 자료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문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차

친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개척자를 따르십시오

친4 릴라의 선택

친6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르헨티나예요!

친8 새미의 자그마한 빵 수레

친10 서로 달라도 함께할 수 있어요

친12 속속 자라나는 나의 신앙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자매님의 비밀 재료

친15 빛나는 아이디어

친16 용감한 모범: 깜짝 놀랄 선교사 부름

친18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친19 재미있는 활동: 작고 단순한 퍼즐

친20 경전 이야기: 회개한 엘마 이세

친23 색칠하기: 엘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책 안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친구들』 표지
삽화: 리베카 소르게 젠슨

모든 권리 보유 © 2020 INTELLECTUAL PROPERTY RESERVE, INC.

